



# 時 計 塔

SIGETOP



2007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4권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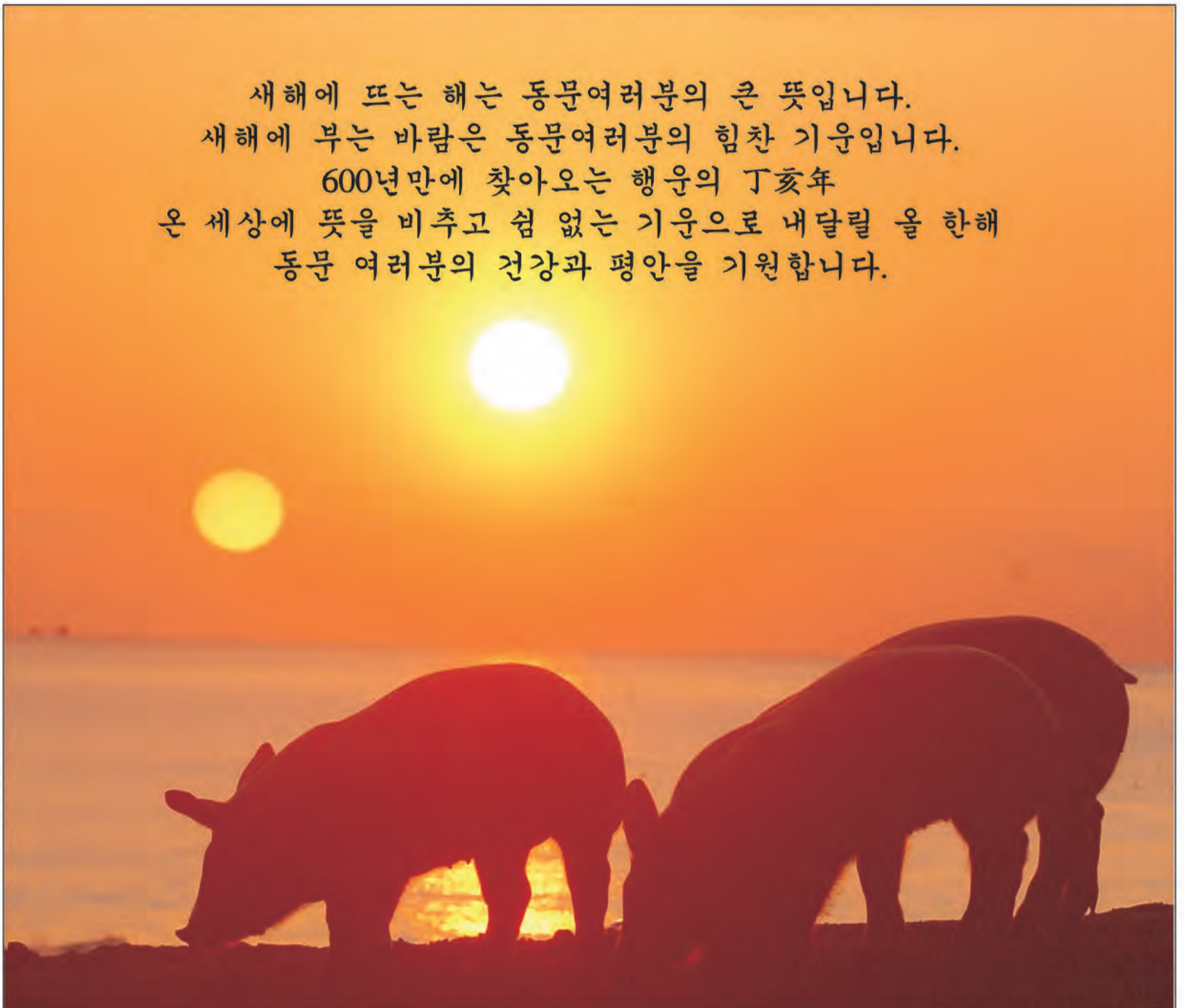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趙東峻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새해에 뜨는 해는 동문여러분의 큰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동문여러분의 힘찬 기운입니다.  
 600년만에 찾아오는 행운의 丁亥年  
 온 세상에 뜻을 비추고 섬 없는 기운으로 내달릴 을 한해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2007 Winter Convention

2007년 연례학술대회가 로스앤젤스의 온화한 기후속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동문 및 가족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07년 1월 31일(수) ~ 2월 4일(일)

장소: PACIFIC PALMS RESORT HOTEL

One Industry Hills Parkway, Industry Hills, CA  
www.PacificPalmsResort.com

회장 조동준(64) 학술위원장 정균희(72) 준비위원장 최광휘(76)

### 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돼지 띠입니다. 품과 마음을 살찌우는 해가 시작되자마자 LA에서 미주 동창회가 개최되게 됨으로써 미주 동문의 많은 참석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참석하리라 기대됩니다. 동문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학술행사를 통하여 각 분야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특히 우리 2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확인하고 기뻐함으로써 마음은 풍족해지고 따라서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LA의 Winter Convention이 되도록 합시다. 저도 참석하여 "모두 변해야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서울의대 동창회가 과거 8개 의과대학에서 41개 의과대학으로 변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변하지 않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서울의대 동창회는 합춘 바둑대회, 총회, 등산대회, 테니스대회, 합춘 미술전, 골프대회, 송년의 밤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난해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회 때마다 동문들의 참석률이 점점 증가하여 금년에는 두 배 이상의 참석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합춘 송년의 밤에서는 미주 동창회의 안연승(64) 동문이 합춘 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개최된 서울의대 동창회 총회석상에서는 미주 동창회의 이형모(49)동문께서 합춘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주 회원분들의 업적에 모든 분이 수상대상이 되겠으나 제한된 수상대상자로 인하여 모든 분을 모시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였다고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미주 동창회 여러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행복한 결실을 이끌어 내어 우리 모두 흐뭇하고 기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의대 동창회장 하 권익

### 축복과 풍요로운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7월 20일부터 2006년 7월 19일까지 4년간 서울대학교 총장 업무를 수행한 후, 지금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거시경제학'과 '화폐와 금융시장'을 강의하는 정운찬입니다.

저는 작년, 즉 2006년 초에 조동준 회장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캠프를 방문하여 '아무런 제목으로나' 특강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조회장님께서 모교를 방문하셔서 답소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을 뵈을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긴장도 됩니다. 특강은 '한국 경제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나 서울대학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 황금돼지해, 특별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새해는 600년만에 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니 모든 동문과 그가정에 특별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미주동창회는 최준회 전회장의 열정과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서 잘 운영되었으며 또 신년후반기에는 신임회장 최영자 동문에 의해서 새로운 면모의 동창회로서 발전을 기하리라 믿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매꾸기 위해, 부족하지만 저의 평생의 가장 큰 도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준석(59) 윤만중(59) 설원종(66) 이종성(71)동문들께서 별세하셨기에 유가족과 함께 아픈마음 나눕니다. 또 여러동문과 가족에 암 발생 등등 치명적인 신체적 장애를 경험한 동문 내지 가족 등, 주위에 많은 아픔이 생겼음을 회장의 자리에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 허약(fragile)하다는 것도 정말 실감하고있습니다.

미주동창회를 즐기는 접경은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입니다. Annual convention에 참가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계탑에 투고도 하며, 또 동창회 website에 댓글도 올리며, 동창소식도 가끔 교환하며 동창간에 수시로 접촉하는 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snucmaa.org라는 website를 아직 접촉하는 동문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활성화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LA Winter Convention에는 computer 교육program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주 합춘의학상은 Miami University의 안연승(64)동문에게로 돌아갔으며, 상금 1천만원중에 모교에 30%, 20%는 본국 동창회에, 나머지 50%는 미주서울의대동창회에 기증했습니다. 안연승동문의 쾌거가 인상적입니다.

오태요(62)동문의 아들 그리고 김건언(65)동문의 사위인 Eugene Ohr 군은 12월말에, 모교 의대생 두 사람에게 일년에 5천불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미주 우리 동창회에 제의해 왔습니다. 아버지와 장인을 위해서 2002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연례 행사이라니, 젊은 나이에 생각이 깊은 행동이라 생각 됩니다. 금년 미주합춘대상자로는 N.I.H.에서 40여년 prostate cancer carcinogenesis 연구에 골몰하시는 임종식(57) 동문이 미주 후보자 추천에 올라 있습니다. 합춘대상은 동문중 전 생애를 통하여 학술연구, 의료봉사 또는 사회공헌의 부문에서 인류복지 정진에 공헌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본국 동창회에서 매년 미주동창회에 대한 배려에, 긴 세월 동안 멀리 떨어져 살아오지만 끈끈한 형제같은 정을 느낍니다. 미주동창회 회장으로서 본국동창회와 본국동창회 하권익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매년 미주 컨벤션때마다 태평양을 이웃집에 들러듯이 다니시며 참가해주시는 그 열정과 건강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년에도 최선을 다해 사시는 모습은 아름답다 해야겠습니다.

본국동창회와 미주동창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창회는 배우자와 2세가 함께하는 큰가족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계속 발전을 해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연히 미망인이 되신 배우자께서도 이 이민선에서 하선하지 마시고 이세들과함께 계속 항해를 같이해야 합니다.

금년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에는 전서울대학교 총장 정운찬 교수님이 Key Note Speaker로서 '한국경제의 과제'와 서울대학교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특강을 들려주시려 오십니다. 연제에 맞는 정답을 제시하실것으로 생각이되며 한국에서 금년에 '2007의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동창의 관심과 무관심으로 동창회의운명이 벼랑끝에 서있는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으니 더 늦기전에 동창회 재건에 모두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금년은 미주동창회에서 처음으로 여성회장을 모시는 해가 됩니다. 최영자 회장이 훌륭하게 직책을 수행할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금년 6월 16일부터 일주일간 기차를타고 관광하는 Colorado 여행에 참가하시기 재차 추천합니다.

끝으로, 동창회에 관대한 기부금을 보내주시고 여러면에서 협조해주신 동창 여러분들에게 회장으로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창여러분의 과정과 그 가족에게 금년에도 행복한 시간과 건강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미주서울의대 동창회 회장 조 동 준 올림

## 동창회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06년 7월 1일부터 2007 1월 10일까지)

김기태(58) 375	최창승(58) 100	서경화(59) 25	김병석(59) 125
권기홍(60) 1000	계훈택(61) 50	서영석(61) 500	황현상(61) 125
권영조(63) 2000	김태웅(63) 500	김현철(63) 200	이종민(63) 125
송용덕(63) 100	왕규현(63) 200	김태환(64) 100	노재욱(64) 50
이광신(64) 200	이유찬(64) 500	이재풍(64) 3000	이홍표(64) 3000
조동준(64) 1000	송관호(64) 75	최준회(64) 500	허선행(64) 1000
이한중(65) 100	설원종(66) 200	윤낙승(66) 500	정양수(66) 50
한동수(66) 500	임 번(67) 500	김주평(68) 75	이건일(68) 200
김일영(71) 3000	곽승용(71) 100	위장호(73) 100	박세화(76) 2000
최광휘(76) 500	차민영(82) 300	차병원 광고비 2995	

합계 \$ 25,470

동창회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Fundraising Committee Chairman 김일영

Dear Dr. Jo,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I hope that this message finds you and your family well.

I am sending this e-mail today to announce our intention to sponsor SNU Medical School Scholarships in 2007. Our proposal is identical to the one used in 2002, 2003, 2004, and 2006.

1. THE SCHOLARSHIPS: We will offer TWO \$5000.00 scholarship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tudents. We would like them to be named as follows:

- SNUCAA Dr. Jason Taeyo Ohr 1962 Scholarship
- SNUCAA Dr. Kim Geun-eun 1965 Scholarship

2. THE SELECTION CRITERIA: The scholarship recipients will be selected by the faculty of the SNU College of Medicine based on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in order of importance:

- A. FINANCIAL NEED: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offer the scholarship to students with financial needs or hardships.
- B. WORK ETHIC: We would like the scholarships to be awarded to students who demonstrate a strong work ethic and desire to study.
- C. GRADES: We would like the students to represent the upper-half (top 50%) of their class academically.

3. THE PAYMENT MECHANISM: We would like to fund the scholarship via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e understand that SNUCAA has the legal mechanism to fund the scholarships in Korea and has tax-exempt status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ode.

4. TIMETABLE: We hope to make the payment to the SNUCAA in January so that the scholarship can fund the FEBRUARY, 2007 school semester.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via email or via phone (310) 454-3493 (home) / (310) 996-6045 (office).

Please note, however, that I will be in SEOUL between December 29th and January 13th. We will, however, be checking e-mail regularly. Many thanks and HAPPY NEW YEAR!

Sincerely yours,  
Eugene & Catherine Ohr

### 안연승(64)동문 '합춘의학상' 수상 박세록(63)동문 '장기려의도상' 시상

연구와 의도 실천으로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준 회원을 포상하는 제10회 합춘의학상과 제3회 장기려의도상 시상식이 합춘송년의 밤 행사에서 회원들의 축하속에 열렸다.

영광의 수상자는 이동수(82, 모교 핵의학과 교수), 김효수(84, 모교 내과학과 교수), 안연승(64, 마이아미의대 혈액학과 교수) 동문 등 합춘의학상 수상자, 장기려의도상 수상자인 박세록(63, SAM 의료복지재단 국제총재) 동문 등 4명.

이들 수상 동창은 연구분야에서 각별한 업적을 발표했거나 고 장기려 선배의 헌신적인 삶을 본받아 실천하여 귀감이 된 주인공으로 서울의대인의 긍지를 높여준 인물들이다.

합춘의학상 수상자에게 각각 1천만원의 연구비를, 장기려의도상 수상자에게는 금메달 및 업적출판비 1천만원을 수여했다.

해외부문 학술상 수상자인 안연승(64, 혈액학)는 ITP(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환자 치료와 microparticles에 관한 연구로 이 상을 받았다. 안 동문은 "어려웠던 시절에 의대 졸업이 가능하게 도와주신 누님과 훌륭했던 모교 선생님들께 영광을 돌리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히며 상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모교 발전기금, 한국동창회 발전기금, 미주동창회 기금으로 모두 기증했다.

한편 올해 장기려의도상 수상자인 박세록 SAM의료복지재단 국제총재(63, 산부인과)는 북미 기독교의료선교회, 한민족복지재단, SAM의료복지재단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헌신해 온 공을 높이 인정받았다.

###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상'

### 김중호(66) 김용재(66)동문 수상



김중호 신부 김용재 동문

지난 10월 10일 모교에서 거행된 '동창 흡컴임' 행사에서 김용재(66, 미국)동문과 김중호(66, 한국)동문이 2006년도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선정 표창되었다.

카톨릭 신부인 김중호 동문은 58년 입학 후 사제서품을 받은후 66년 졸업하여 가톨릭 학생회를 운영 빈민구제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 미주동창회에서도 '김중호 신부기금'을 모금한 바 있다.

김용재 동문은 66년 졸업후 곧 도미하여 뉴욕 '알버트 아인스타인'의과대학과 Montefiore 병원에서 산부인과 트레닝을 받고 70년부터 브롱스에서 산부인과 개업을 시작 크게 성공했으며, 이민 초창기 많은 동문들과 교포의사들이 뉴욕 및 근교에서 개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동문은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학년대표, 이사, committee chairman 등으로 일했으며 합춘회관 건립기금에 거액을 회사하기도 했다. 특히 1998년 동창회 최초의 Silver committee가 구성되었을때 chairman을 맡아 당시 송관호 회장을 도와 고국방문을 구성하여 모교와 병원 및 여러 주요의료기관, 전국 각지의 지부 방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1995년 캘리포니아 팜스프링 '라퀀타 리조트'에서 개최된 KAMA(당시 회장 이만택 동문)의 광복 50주년 컨벤션 행사준비위원장으로 참가인원 1천5백명이 넘는 KAMA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모국 소식

### 백낙환(51)동문 2006년도 인당장학금 수여 총 13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원 지급

백낙환(51, 인제대, 백병원이사장)동문이 설립한 장학재단 인당장학회가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 135명에게 총 1억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인당장학회는 12월 1일과 5일 김해 인제대학교와 서울 인당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교생 65명과 대학생 30명, 대학원생 40명 등 13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인당장학회는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로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사회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총 135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 장학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 논문이 우수한 대학원생 4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백낙환 이사장이 지난 1989년 사재를 출연해 만든 민간장학재단 인당장학회는 백낙환대계인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가계형편이 어려워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1990년 설립된 인당장학회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선발된 1,280명의 중, 고, 대학생에게 모두 7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인당장학회는 매년 수익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권이혁(47)동문 서재필기념회 의학상 시상

서재필 기념회(이사장 백낙환)는 제3회 '서재필 의학상' 시상식을 12월 4일 서울백병원 인당관에서 갖고 권이혁(47, 성균관대 이사장)동문에게 시상했다.

권이혁 이사장은 서울대 의과대학교수, 서울대 총장 및 서울대병원장, 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의학 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 이길여(57)동문, 2006년 존경받은 경영인상 수상

이길여(57, 본국동창회 명예회장, 가천길재단 회장 겸 경원대 총장)이 최근 한국경영인협회에서 '2006년 존경받은 경영인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동창이 98년 가천의대를 설립해 의료인을 양성하는 외에 가천문화재단 설립, 가천박물관 개관,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설립 등 문화사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공로가 높이 인정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을 대신해서 동창회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 훌륭한 동창회가 계속 발전하고, 이세들도 참여해서 뻘어나가길 빕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가족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기운을 북돋아 주신것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는 동창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Mrs. 설원중 드림

고 설원중(66) 동문의 부인께서 보내신 편지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Report

이번 합춘의학상 수상자로 안연승 동문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연승 동문은 본 의과대학 64년 졸업생으로 군복무후에 도미하여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인턴쉽과 내과 레지던트를 수료한후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에서 Hematology fellowship을 마치셨습니다. 연수후에 계속 마이아미 의과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역임하고 1985년 이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Jackson Memorial Hospital의 Chief of Hematology를 역임하였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마이아미 대학 부속 Wallace H. Coulter Platelet Laboratory의 director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Scientific and Medical Journal에 많은 논문을 출판하였고 또 다수의 professional organization의 member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동문은 특히 Platelet research에 전념하셔서 지금은 ITP(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의 세계적인 연구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Platelet Microparticles, Endothelial Cell Microparticles, Cell Derive Microparticle 등은 그의 중요한 연구분야이며 앞으로 Human disease 특히 Platelet disorders, Thrombotic and Inflammatory disorders에서의 역할을 알아내는데 기여하실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살펴볼때 안연승 동문의 수상은 당연하고 자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연승 동문께서는 이미 수상결정후에 상금의 30%는 모교 의과대학에, 20%는 의과대학 본국동창회에 50%는 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 기증하신다고 하시니 안동문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숭고한 연구자의 자세에 감탄과 존경을 표합니다.

다시한번 안 선배님께 축하드리며 이하는 안연승 수상자의 수상소감을 소개해 드립니다.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Chair 이 헌병 (68)



### 수상소감

본인을 합춘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데 큰 영광을 느끼며 동창회와 모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춘원을 떠나서 외국 땅에서 의학생활을 시작한지 사십여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생활 속에서도 합춘원의 추억은 언제나 가슴 한 구석에 살아있어 희망과 용기의 불을 켜주었고 합춘원에서 가꾼 젊은 꿈과 사명감이 생애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재삼 발견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저에게 가장 의미있고 귀중하며 큰 영광입니다. 어려웠던 학구시절에 나에게 어머니 노릇을 하시고 의과대학 졸업이 가능하게 도와주신 내 누님과 훌륭했던 모교 선생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보살펴주며 항상 곁에 있어준 저의 아내에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 새로 도미한 뛰어난 우리 후배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이 우리의 큰 자랑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그들이 외국에서 숨은 재능을 발휘하고 젊은 꿈을 실현할 것을 바라며 이곳에 먼저 온 선배로서 그들을 안내하고 도와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합춘원의 기억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앞으로 모교와 동창회에 더욱 더 보답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안 연승(64) 올림

# 2007 Annual Medical Convention Program

## GENERAL PROGRAMS

### Wednesday, January 31, 2007

- 3:00 pm Registration at Lobby
- 4:00 pm Delegate Meeting
- 5:30 pm Welcome Reception for members and family

### Thursday, February 01, 2007

- 6:30 am Breakfast at Hall Way
- 07:00 am-10:30 am Scientific Session
- 11:00 am-05:00 pm Golf Outing
- 7:00 pm Members Class Reunion

### Friday, February 02, 2007

- 6:30 am Breakfast
- 7:00 am-9:45 am Scientific Session
- 9:00 am-5:00 pm Golf Outing
- 7:00 pm Entertainment and the dinner party

### Saturday, February 03, 2007

- 6:30 am Breakfast
- 7:00 am -9:45 am Scientific Session
- 11:00 am -5:00 pm Golf Outing
- 7:00 pm Annual Ball Banquet

### Sunday, February 04, 2007

- 8:00 am-9:00am Executive Committee Meeting

## Non-CME PROGRAMS

### Thursday, February 01, 2007

- 10:00 am-11:00 am "영어를 알면 미국이 보인다"  
Improv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y Professor Evelyn Uyemura  
of El Carmino College, Torrance, CA
- 11:00 am-12:00 pm SNUCMAA Website 사용법  
Mr. 조무상(남기주 서울대 동창)

### Friday, February 02, 2007

Moderator: Edward K. Chung MD.

- 8:00 am-10:00 am 1)Harmonizing th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skill between men and women  
2) 부부간에 마음을 전달하는 대화  
**Soon Ja Lee, Ph.D., Psychologist**
- 10:00 am-11:00 am What are all about Real Estates in California?  
**Ms.Young Lee, Real Estate Broker**
- 11:00 am-12:00pm How to prepare retirement and how to enjoy  
the retirement life? **Edward K. Chung, M.D.**
- 2:00 pm-03:30 pm Travel and sightseeing  
**Mr. Pyung-Sik Park, 아주관광 사장**
- 3:30 pm-05:00 pm Line Dance Lesson.

### Saturday, February 03, 2007

- 8:00am -9:00 am How to utilize SNUCMAA Website;  
**Ms. Whojeong Lee**
- 9:00am -9:40 am "What comes after the middle age?" (Second adult  
life for men or women) **Susan K. Chung, M.D.**  
Asst. Clinical Professor of Psychiatry Dept. at Southern California

## GOLF TOURNAMENTS

### Thursday, February 01, 2007

- 11:00 am Shotgun  
Eisenhower Golf Course

### Friday, February 02, 2007

- 9:00 am First come First Server (80 persons)  
Palos Verdes Los Verdes Golf Course

### Saturday, February 03, 2007

- 11:00 am Shotgun  
Oak Quarry Golf Club

## SCIENTIFIC SESSIONS

### Thursday, February 01, 2007 Moderator: Peter Lee, M.D.

- 6:30am~06:50am Breakfast and Registration
- 6:50am~07:00am Welcome and Opening Remark. **Daniel Jo, M.D.**
- 7:00am~07:30am Hypertension Update: **Peter Lee, M.D.**
- 7:30am~08:00am The Future of Stem Cell Research:  
**Kwang Yeol Cha, M.D.**
- 8:00am~08:30am Up-to-date on Platelets and Cell derived microparticles:  
(금년 합춘의학상 미주수상자) **Yeon Soong Ahn, M.D.**
- 8:30am~08:40am Intermission
- 8:40am~09:40am Special Lecture (Keynote speech "미래의 한국 경제")  
Former President of SNU **Un Chang Chung, Ph.D.**
- 9:30am~10:00am Chronic hepatitis B (CHB): Latest information on the  
Virus, disease and epidemiology.  
**Hie-Won Lee Hann, M.D.**
- 10:00am~10:30am Creativity and Alcoholism: 'Charles Bukowski's life  
and work.' **Stanley Jung, M.D.**

### Friday, February 02, 2007 Moderator: Young Jo Kwon, M.D.

- 6:30am~6:50am Breakfast and Registration
- 6:50am~7:05am Dean's Address: **Kyu-Chang Wang, M.D.**
- 7:05am~7:35am 'Je Jung Won'(재중원) and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origin of modern hospital in Korea:  
**Sang Tae Kim, Ph.D**
- 7:35am~8:05am Daehan Hospital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oo-Yong Chun, Ph.D**
- 8:05am~8:35am Atopic Dermatitis in Korea: **Kyu Han Kim, M.D.**
- 8:35am~8:45am Intermission
- 8:45am~9:15am Advancement in prostate cancer: Novel human cell  
models for the study of prostate:  
**Johng Sik Rhim, M.D.**
- 9:15am~9:45am Ischemic Stroke: Treatment and Prevention:  
**Doo Jin Kim, M.D.**

### Saturday, February 03, 2007 Moderator: Hong Pyo Lee, M.D.

- 6:30am~6:50am Breakfast and Registration
- 6:50am~7:05am Address from President of SNUCM  
Alumni Association. **Kwon Ick Ha, M.D.**
- 7:05am~7:35am Peripheral vascularization and perfusion:  
**Soohyun Kim, M.D.**
- 7:35am~8:05am What are palpitations and how should  
they be managed: **Edward Chung, M.D.**
- 8:05am~8:35am What is unique for Korean Americans on  
suffering and dying: **Suck Kyu Lee, M.D.**
- 8:35am~8:45am Intermission
- 8:45am~9:15am When a patient presents with thrombocytopen  
**Jae Chan Chang, M.D.**
- 9:15am~ 9:45am Insulin pump and DM management:  
**Soo Bong Choi, M.D.**

## Non-CME Programs w/ Payment

### Thursday, February 01, 2007

- 2:00 pm-05:00 pm Computer Class at Internet PC CAFE  
"Do I have to learn computer" introduction  
to Computer \$ 40.00  
(transportation included) 38 persons only (Bus leave at 1:00 pm  
from the hotel) 1451 W. Artesia Blvd.# 3 Gardena,CA.  
Tel 310-800-0161 (chartered Bus leave at 1.00 PM from Pacific Palms Hotel )

### Friday, February 02, 2007

- 9:00 am-12:00 pm "세도전의 한국퓨전파티 음식"  
Cooking class at California Premier Culinary  
School (Bus leaves at 8.00am )  
\$ 75.00 per person (lunch included),  
25 persons only **Ms.Jane Chang**
- 2:00 pm-05:00 pm Computer Intermediate Course  
(Internet, E-mail,Download etc.)  
Computer Class at Internet PC CAFE  
(Bus leaves 1:00pm) \$40/person, 38 persons only

### Saturday, February 03, 2007

- 9:00am- LA. City Tour (Optional Getty Museum and  
shopping in Korea Town) \$ 30.00 per person

# 소금 전쟁과 식염 논쟁

김 일 훈(57, 시카고)

소금 전쟁 성경에 "소금은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라 했을 정도로, 소금은 우리 생활과 생명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물질이다. 인기드라마 주몽에 소금을 얻으려는 무역전쟁이 악화되어, 부여와 인접부족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동양의 소금 전쟁: 한반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바다가 아득한 만주대륙에서 비롯된 우리 조상의 나라 부여국에선, 소금은 중국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중국은 길고 긴 해변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사천성 등 내륙지방에 산재한 염암(鹽岩, 소금바위산)이 있어 식염격정이 없었으며, 그들은 소금을 미끼로 부여를 비롯한 주변 부족을 농락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기름소프처럼 소금소프가 만주벌판의 부여쪽을 항상 괴롭혔고, 그것이 전쟁을 유발하기까지 했다는 역사를 우리는 드라마 '주몽'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처럼 바다에 인접한 좁은 땅엔 소금바위산이 없고, 소금은 전적으로 바닷물에서 얻어진다. 내륙지방의 소금조달은 중앙집권 제국이 조선반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무인(武人, 사무라이)정치아래 각 지역마다 '군운활거' 하던 중세기 전국시대, 내륙지방의 영주는 소금을 찾아 해안(海岸)으로 영토확장에 혈안이었다고 일본역사는 전한다.

지금부터 400여년전 일본전국시대에, '소금 전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 혼슈의 중부에 위치한 지금의 시즈오카縣 주변 두 지역의 군사정권 즉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의 지배자 다케다(竹田)장군과 바로이웃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이마무라(今村)장군은 서로 숙적이었는데, '이마무라'는 소금금수라는 무역봉쇄조치로 '다케다'쪽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케다' 장군은 백성의 활로를 찾아 와신상담 군사력을 강화시켜 1570년 드디어 무력으로 해변에 소재한 이마무라의 수도(현재 시즈오카市)를 점령해서, 태평양연안까지 영토확장에 성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유럽의 소금 전쟁: 소금 전쟁은 고대유럽에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멀지 않은 살츠버그(Salzburg)는 모차르트의 탄생지로 유명하지만, 이름 그대로 소금산(Salz=소금, Burg=산)이 있는 소금산지로 옛날에 잘 알려졌으며 지금도 유럽의 소금공급지이다.

살츠버그에는 그 주변에서 발견된 2천8백년 이전의 청동기와 철기문화의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유럽의 호화찬란했던 Hallstatt 문화를 알리는 관광도시이기도하다.

기원전 8세기 이전에 그곳(Hallstatt)에서 이미 소금바위의 채굴이 행해진 흔적이 있어, 지금부터 2백년전에 채굴장에 대한 탐색결과 유적이 발견되었다.

로마제국시대엔 로마인이 그곳 소금광산을 독점했으나, 로마제국멸망 이후 채굴장지권을 찾아 Salzburg대사교(大司教)와 합스부르크왕조 Albrecht 1세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소금전쟁'이라 일컫는 싸움은 대사교측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하여 대사교

시대 Salzburg지역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은 소금광산 덕분이라 전한다.

현재 소금광산채굴은 국영기업으로 돼있다고 하며, 참고로 Salzburg에서 소금광산이 있는 Durrnburg까지 관광코스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1997년 UNESCO는 소금채굴장 주변 알프스산악지대의 웅장한 경치를 그곳 이름을 따서 Hallstatt-Dachstein 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라 명명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알프스에 싸인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과 더불어, 지역의 고고학적 지리학적 학술가치가 인정된 결과이다.

미국의 소금전쟁: 미국대륙에서도 텍사스에 있는 El Paso 소금광산은 옛적 인디안과 치카노 등 지방족속들이 장기간 이용해 왔으며, 1877년 광산지배권을 둘러싸고 정치세력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소금 전쟁(El Paso Salt War)이라 부르고 있다.

## 소금 논쟁

조미료에서 몸에 해롭다는 당분과 지방에 대치해서 식염이 많이 사용되고,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 미국인의 소금소비가 지난 30년간 급증하여 소금이 신약음식이 되어가고 있다(참조: 본지 2005년 4월4일자 필자의 건강돌보기 '염분과다식품의 새로운 해독').

근래 패스트푸드와 냉동포장식품의 식염과다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다. 2006년 6월 AMA 정기총회는 FDA로 하여금 식품회사에 대해 판매식품의 식염함량을 명시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함량을 현재의 50%로 줄일 것을 요구한바 있다.

지금까지 FDA는 식품레테르의 성분분량표시에서 식염을 제외해왔으며 "식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규제지었다. 그러나 근래 미국인의 식염사용량이 증가해짐에 따라 AMA는 FDA에 대해 식염이 안전하다는 종전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새로운 AMA 제안은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바 있다.

식품레테르의 규제에 관여한 적이 없는 AMA로서는 처음 있는 간섭이기도 하다.

만일 AMA의 권고가 수리되는 경우, 포장식품회사는 여러 식품의 식염 허용량을 준수해야하고, 따라서 음식 맛과 음식저장을 함께 도우는 식염을 대체할 물질을 찾아야하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FDA는 2006년 중에 '식염과 건강'에 관한 청문회와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AMA요구에 대한 회답을 마련키로 했다는 뉴스다.

물론 식품업계에서는 식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강력반대하고 있으며, 식염제한하려는 정부시도를 봉쇄하게끔 로비활동에 열중중이라 전한다.

참고로 현재 식염 마켓은 총 3억4천만 달러(\$340M)의 규모이다.

식품업계 자문을 맡고 있는 식품전문가들은 <식염섭취를 줄여도 건강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결론내린 일부 논문을 인용하면서 "식염과 고혈압의 상관관계" 하나만으로 식염제한레테르 부작강요는 부당한 일이라 반박하고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식염제한규제를 촉구하는 AMA는 물론 정부

# 동창회에 제언

임 낙 중(59, 메릴랜드)

제언이라 하면 의견이나 생각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골에서 은퇴한 개업의사로서 별 의견이 있을 턱이 없겠으나 생각도 없지는 않을 것이니 지면을 할애해 주신 기회에 보답할 겸 몇자 올린다. 대체로 의사중에는 개인주의적이고 간섭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독불장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사들 모임인 동창회와 시계탑을 지키고 보살피느라고 생색이나 감사도 없는 일에 애써온 동문들에게 우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

나를 포함해서 동창회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참여정신이 희박한 동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도 다양해서 어떤 분은 의대과정중에 있었던 불만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앞에 나서서 간혹 난 척하는 동문이 눈에 거슬려서, 어떤 분은 세상 일이 뜻대로 안되어 시큰둥해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고 바쁘다보니, 어떤 분은 자기 전공분야가 너무 심오해 말상대가 없어서, 어떤 분은 돈버는데 너무 재미가 들어서, 어떤 분은 동창회보다 중요한 개인 사정에 매여서 등등 한권의 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동창이 천여명인데 의사 수입의 기백분의 일도 안되는 동창회비 납부명단을 보면 참여정신이 부족하다는 내 말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고 서울의대보다 작은 지방 K대나 J대 등의 활동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교회헌금을 하지 않고도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믿는 분이 있듯이 동창회비를 내지 않아도 동창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누구를 비난하려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니 미리 양해를 빈다.

같은 대학 마당에서 육년을 함께 보냈다. 그 인연은 대체로 부모, 부부, 자식, 형제 다음으로 깊은 인연이니만큼 미운 정이든 고은 정이든 간에 관계없이 동창 모두가 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참여정신을 더 돈독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내 첫번째 제언이다. 이 제언은 말하는 나부터 먼저 회개 하라고 내게 타이르는 말도 된다.

미국에서 사는 동창들은 한국에 남있는 동창과 여건이 다르다. 첫째로 모국을 떠나 살기 때문에 좀 더 외롭고 동창회의 장래도 무인도에 떨어진 친구들의 모임처럼 제한되어 있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몸이 더 익숙지라 give and take 정신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창들을 동창회 활동에 더 참여하게 하려면 의리 체면 모교애 같은 code도 중요하지만 동창회의 활동이나 회지가 재미있어야 하고 득이 있어야 하며, 친목으로 우리의 고독을 달래주어야 하니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시라고 제언해 본다.

예를 들면 강의도 흥미있고 유익해야 더 모일 것이고 잡지기사도 우리 이민 의사들의 회로애락의 정이 담겨야 흥미를 더 끌 것이다.

총대 메고 나서서 일하는 분들은 기왕 회생하시는 김에 reward는 하늘에서 받을 각오로 일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린다.

동창중에 숨은 인재나 자재분들의 미담, 덕담, 성공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싶고 그 반대로 불우한 분들의 얘기로 눈물도 같이 흘려보고 싶다.

내가 자랄 때에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말이 있었고 침묵이 금이었다 했는데 이미 너무 말이 많았으니 망언다사 용서를 빈다.

서울의과대학미주동창회 만세

자문기관인 IOM(의학 연구원)과 AHA(미국심장학회)와 의견을 같이한다. 고혈압이 바로 미국 제1살인자 심장병과 제3살인자 뇌졸중을 초래하는 원흉이기 때문이다.

2004년 NHLBI(국립심장폐장혈액연구원)의 연구보고에서 <만일 포장식품과 식당음식가운데 식염함유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연간 미국인사망자에서 15만 명이 구제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IOM의 식염경보와 AHA서 추천한 식염을 줄이는 방도는 표 2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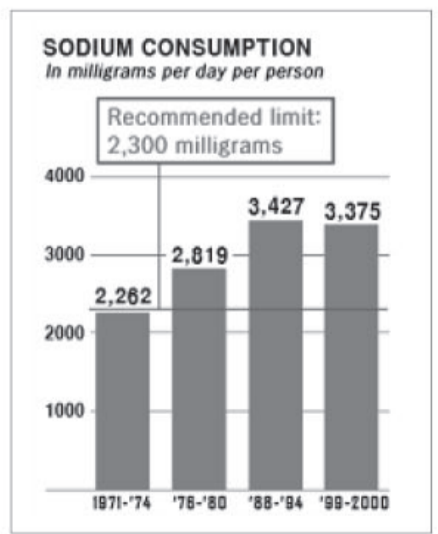
3과 같다. 연방정부 CDC(질병관리예방센터)의 식사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젊은 성인의 1일 식염섭취추천용량은 2.3 gm 이하, 그리고 노인과 고혈압환자와 흑인(고혈압위험도 높은 종족)은 1일 1.5 gm 이하이다.

하지만 2000년도 미국인 평균 1일 식염소모량은 3.37 gm으로 정부추천보다 훨씬 높다(참조 표 1).

지금으로서는 FDA서 청문회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적인 관측이 유력하다. 사실이지 최근 엄청난 업무분량에다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FDA인지를, 처리해야할 많은 우선순위가 보류중이다. 그래서 소금제한규제를 적극추진하고 나선 시민단체는 "계류 중인 FDA 우선순위에 식염이슈를 톱 리스트에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고충은 식염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맛'을 대체할 대용물질 발견의 어려움이고, 아직 그런 물질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회사들은 다가올 소금규제에 대비해서 식염대용품으로 된 패스트푸드와 냉동포장식품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Lucky Perpetual Youth

## 행운의 만년 소년, 정구영(57)동문

서인석(73, 대뉴욕)

성공의 비결이란??? '자신감'이라고 정선배님께서 서슴치 않고 대답하셨다. 평생 '행운'이 자신을 따라 다녔다고 거듭 강조하는 정선배님께서 13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양 어머니 아래서 자라나셨지만, 자신감 하나만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든든한 재산이다.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탓으로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친척 형제들이 모두 함께 살으셨다.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닭장 우리'마냥, 하루 종일 사방에서 삐약 삐약, 와글 와글거렸고, 혼란과 활기와 질서와 경쟁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혼합된 가정 교육을 받고 자라나셨던 것이다. 그 가족중에서 39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다고 하셨다.

정선배님의 자신감에는 아마도 부친, 정일천 박사의 영향이 가장 크셨을 것이다. 정일천 박사는 서울의대 교무과장, 학생과장, 부산의대 초대 학장, 부산대학교 총장, 카톨릭의대 초대 학장, 등등을 역임한 분으로서, 명예와 부유와 성공은 물론, 내적 성화와 미덕을 닦으셨던 보기드문 인물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정선배님의 눈길은 마치 초롱초롱 빛나는 어린 소년과 같으셨다.

정선배님은 '한국의 이름을 빛낸 사람'으로 지정되어 8.15 공로상을 수여 받으셨다. 수많은 의대 교과서와 논문을 저술하셨고, Thomas Jefferson 의과대학 교수직을 퇴직한 지금까지도 미국 전역의 의학전문가들을 직접/간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 "어려운 Cardiology 문제라면 무엇이든지 Dr. Edward Chung 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계신 것이다. 그점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이름을 빛낸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시다.

정선배님은 한국 의대생들과 레지던트들에게 Exchange Program을 마련해 주셨다. 수많은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 와서 training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위한 크나큰 공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심장학 박사들 중에 Dr. Edward Chung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국에서도 정선배님을 모른다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정선배님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Dr. Chung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간 이식 수술' 일 것 같다. 간이식을 두번 씩이나 받고, 죽음의 문턱을 걸어 들어갔다가 두번 씩이나 되돌아 나오신 후에 19살의 젊음을 누리시고 계신 그 '행운'과 '기적'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선배님은 4년전에 C 간염을 앓으셨고, 간이 경화되자 황달로 온몸이 노랗다 못해 새까맣게 변색되면서 죽음을 눈앞에 당면하게 되셨다. 간이식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셨지만, 이식 받을 간이 그리 흔한가? 작년만 해도 간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수가 미국에 17,645 명이나 되었다니, 어쩌다가 간이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선배님께 낙착되리란 하늘에 별따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마침 플로리다 Mayo Clinic에서 간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정선배님의 제자들이었으니, 그 또한 '행운'의 연속이 아니었겠는가? 간이식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몸속

의 혈액 전체를 새 혈액으로 갈아야 했는데, 붉은 색깔이라곤 흔적도 없는 '구정물' 같은 자신의 '검은 피'를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하셨다. 수술실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의사가 설명한 후, "Ok, Now, share your last hug."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느꼈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정선배님의 가슴 속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계신 듯 했다.

마치 그 아픔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쾌활하게 말씀을 이으셨다. "스트레치 위에 누운채 수술실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말예요. 간호사들이 줄을 서서 나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와! 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 간호사들이 모두 어찌면 그렇게도 예쁘던지요!!! 그런데 내 꼴은 이게 뭐예요.



정구영(57)동문 부부(중앙)와 서인석(73)동문 부부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간호사들에게 막 손을 흔들며대며, '아니예요! 나 이래봐도 사실 참 멋있는 사람이예요! 내 머리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지다구요!'라고 기를 쓰며 말을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후 온갖 튜브와 와이어들이 입, 코, 가슴에 연결되어 누워계신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던 사모님의 어두운 가슴속에는 한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으셨고 절망의 물결만이 무겁게 출렁이고 계셨다. 한 나절이 지난 후, 어슴프레 눈을 뜨시고 사모님을 쳐다보셨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내려다 보시는 사모님에게 "빨간 립스틱을 바른 간호사들이 참 예쁘더라. 내 꼴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멋진 사람이라고 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모님은 속으로 "아이고!? 이젠 살으셨구나!" 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고 하셨다. 부부란 그런 것인가 보다. 부부끼리만 서로 알아듣는 언어가 있는 것이다.

사모님이 들려주시던 옛 연애시절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수없이 많은 여자 친구들을 거느리면서 춤까지 추러 다니시던 멋쟁이 정구영씨, "다른 여자 친구들을 만나고 올테니 저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시던 정구영씨.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순진한 사모님. 어쩌다 급한 일이 생겨 약속한 데이트 시간에 30분 늦게 도착했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며, "시간도 지킬 줄 모르는 이런 여자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나!? 절대 결혼 못해!"라며 소리치르던 정구영씨. 그래도 한결같이 아껴주고, 챙겨주고, 보살피주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오신 사모님! 지난 추억들을 하나 하나 소중하게 어루 만지시는 듯 입가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셨다.

병원 근무하면서 지식들을 키울 때, 식사를 차려드리지 않으면 굶고 다니시던 정선배님. 아침마다 고대기로 머



남미여행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미 동부 지역에 사는 노용면(55), 이만택(58), 추재욱(63), 최준희(64) 동문 내외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여러 군데를 여행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그 유명한 이과수 폭포(Iguassu Falls) 앞에서이다. - 추재욱(63, 대뉴욕)

리 고대를 헤드려야 출근하시고, 여행갈 때도 고대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며 머리 손질을 헤드려야 했던 정선배님. 정선배님은 책이나 논문만 쓰시고, 강의만 하시라고, 가계부와 자식들 문제는 혼자 도맡아 짊어져오신 사모님의 한없이 넓은 아량과 인내심과 이해심이 오늘의 정선배님을 제작 연출하신 것 같다. 현재의 Dr. Edward Chung은 사모님의 최고 걸작품이 아닐 수 없다.? 정선배님의 '행운'중의 '가장 큰 행운'은 바로 이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니, 사모님을 정선배님께 소개해 주셨던 이길녀/최인자 동기분들께 아직도 감사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정선배님께서 첫 번째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후에 신체 거부반응이 일어났다. 이 주 이내에 다시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다. 극도의 황달이 온 몸을 뒤덮었고, 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려움'이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는데, 너무 가려워서 살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쏟아지도록 긁어냈지만 가려움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죽고 싶도록 괴로웠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셨다. 그 때를 회상하시면서,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I knew even then, someone was watching over me."라고 말씀하셨다.

간을 얻지 못해 대신 돼지 간을 이식하기로 예정했던 바로 전날 아침이었다. 사모님이 시장에 다녀오셨노라고 하며 나가시려고 했더니, "예감이 이상해. 나가지 말고 있어봐."하며 극구 말리셨다. 바로 그때 전화 벨이 울렸고, "이식할 간을 찾았다"는 희소식을 전해주었다. 그순간에 느꼈던 기쁨과 행운과 기적을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으랴! 여기서 정선배님이 psychic 이거나 점쟁이 소질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When body is weak, the spirit grows strong. When stomach is full, the spirit gets weak" 그래서 카톨릭, 불교, 유대교, 모스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에서 금식과 수련과 mortification을 중요시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록 정선배님께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셨더라도, 말할 수 없이 허약해진 그의 몸 안에서 아주 활발해진 spirit을 경험하신 것일게다. 우리 인간은 Body, Soul, Heart, Mind, 네가지 Entity의 존재이며, 우리는 physical한 존재일 뿐 아니라, 더욱 spiritual한 존재인 것이다.

19살난 금발머리의 여자의 간을 이식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셨다. 평생 식욕이 없으셨는데 간이식 수술 이후로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미역국, 된장국, 김치도 아주 맛이 있으시다고 하셨다. 언제나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

고 여성의 참된 아름다움을 음미하시던 정선배님은 50년이상 더 젊어지신 듯, 정열과 활기가 넘치는 청춘을 다시 즐기고 계시는 것 같다.

도미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여쭙보았다. 한국에 살 때는 정일천 학장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어디로 가든지 특별 대우를 받으셨는데,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력서에 써놓인 'fluent English'와는 거리가 먼 'broken English'로 더듬거려야 했고, 백인들 사이에서 원숭이 사촌 정도되는 황색 이방인중의 하나로 보일 뿐이라는 현실과, 미국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해도 감수를 해야만 하셨다. 그러한 시련에 종지부를 찍게 된 동기가 또 재미있다. 미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에 참석하게 되셨다. 정선배님의 유명한 춤춤으로 파티 분위기를 유쾌없이 활기차게 바꾸어 놓으셨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여자들과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날부터 잠시 흔들렸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게 되셨다. 그날부터 정선배님은 의사/간호사들의 인사를 받기에 분주하게 되셨고, 6개월간의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으셨던 것이다. 그때부터 의학 논문에 열중하셨고, Koo Young Chung 이라는 이름이 의학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지도교수의 이름을 따라 Edward Chung 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후, 매년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의학 잡지에 게재하셨는데, 한 해에 12개의 논문을 게재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것이 정선배님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다. 정선배님의 춤과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셨고, 전문지식 또한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항상 최첨단을 달리셨다. 못하는 것이 없으셨고, 안되는 일도 없으셨고,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으셨을 정도로 항상 '행운'이 따라 다녔다고 스스로 자신하셨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골프'! "골프 공이 왜 그렇게 맘대로 잘 맞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이시다. 다른 일에 바빠서 환갑이 훨씬 지난 후에야 시작하신 골프이니,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서서히 연습하시면 19살의 청년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랴!

유어머 감각이 좋아서 연신 웃음을 자아내게 하시는 정선배님께서, "I knew someone is watching over me." 라고 말씀을 하실 때만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셨다. 세상의 눈에 비친 성공의 길을 지름길로만 즐기게 달려오신 정선배님께 그 'SOMEONE'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데는 알 수없는 필연의 이유가 있을 법하다. '영원의 길'도 지름길로 달려가 성공하기를 우리 모두 그 'SOMEONE'과 함께 지켜보고싶다. 아들, 크리스토퍼와 손자들, 딸, 린다와 가족, 그리고 정선배님 내외에게 항상 건강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06년 10월 10일은 학교 가는 날.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모교를 찾았다. 졸업한지가 40년이 넘었다고? 할아버지 태가 완연하지만, 만나는 반가움에 얼굴들이 활짝 피었다.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찬과 여행을 즐긴 한국동기가 32쌍, 미국동기가 31쌍, 반갑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2박3일 국내여행은 바로 다음날 시작되었다. 버스 2대에 분승하여, 양산 통도사로 방향을 잡았다. 곱게 단청된 一柱門 뒤로는 가지각색의 연등이 천장을 만들고 있고, 출렁거리는 연등을 머리 위로 하여 걷는 기분이 상쾌하였다. 대웅전 차마를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똑 바르지 않고, 삐딱한 것이 좀 특이하였고,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없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도사를 떠나 統營에 도착하였으나, 한산도로 가는 배를 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계획을 바꾸어, 극작가 柳致眞, 작곡가 尹伊桑, 문학가 朴景利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港都, 동영의 夜景을 즐겼다. 갯냄새가 물씬 나는 선창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勸커니 酌커니 술잔을 나누는 옛 친구들의 萬端說話는 이보다 더 정겨울 수가 있을까? 이른 아침, 통통배로 한산도를 향하였다. 한려수도의 경관도 좋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다. 입구에 있는 대첩문(大捷門)에는 忠武公 精神 1. 滅私奉公의 精神 2. 創意와 開拓의 精神 3. 有備無患의 精神,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며, 특히 유비무환은 당시 조정 대신들이 귀담아 들었어야 할 대목이다. 경내에 望臺가 하나 있는데, 戍樓라는 편액이 붙어있고, 앞바다의 시야가 특 트였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이 이곳에 자주 올라, 적의 동태를 살피셨다 한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귀에 익은 그 시조의 현장이다. 충무공 영정이 모셔져있는 충무사(忠武祠)에서 焚香拜禮를 올리고, 誠金도 잊지 않았다. 존경심 때문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경주에서는 석굴암, 불국사, 안압지, 그리고 천마총을 구경하였다. 화강암으로 다듬어진 석굴암 본尊像은 蓮花紋이 새겨진 臺座위에 결가부좌하고 있고, 매끈하면서 예술적이다. 석존이라기보다는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法을 說한다는 阿彌陀佛이라는 게 정설이다. 대웅전 앞뜰에 마주보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아름답다. 풍산 유씨의 후손으로 나이 지긋한 자원봉사자 한 분이 함께 걸으면서, 하회마을에 대해 설명해준다. 河回는 나동강물이 마을을 감싸 도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던 西涯 柳成龍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된 이 하회마을은 솟을대문의 양반가옥과 서민가옥인 초가집들이 길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 대대로 豊山 柳氏가 살아온 집성촌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전통마을로서, 1999년 Elizabeth 영국여왕의 방문으로도 유명한데, 가장 한국적 이미지가 가득한 곳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로 정했었다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부엌과 화장실 같은 것을 개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또 하회마을 하면 별신굿 탈놀이와 하회탈이 유명하다. 도산서원에 도착하니 40대 초반의 여성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退溪 李滉(이황) 선생, 도산서원과 시사단 설명이 유창하다. 퇴계의 門下에는 유성룡을 비롯한 수많은 儒學者가 배출되었고, 정승을 지낸 분이 10명, 대제학을 지낸 분이 10명이나

된다. 선생은 모란과 매화를 무척 좋아하셨고, 벼슬살이에 물들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서, 관직을 사양한 적이 여러 번이다. 관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귀거래사를 읊고서 유유자적한 전원생활로 돌아간 도연명 시인을 흠모했음을 엿볼 수 있겠다. 陶山書堂 편액이 붙은 자그마한 기와집에 꽤 넓은 뒷마루와 그 왼쪽에 방이 하나 있다. 이 서당은 선생이 생활하면서, 학문을 가르치시던 교실이었다. 論語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오미꾸지는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것으로 종이를 뽑으면 거기에 그날이나 그해의 운수가 적혀있다. 오미꾸지를 보고 난 뒤에는 신사 뜰에 있는 나뭇가지에 묶어놓는 관습이 있어서, 신사 주변의 나무에는 하얀 오미꾸지들이 꽃처럼 매달려 있다. 또 술이 잘 익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새로 빚은 술을 신사에 바치는 풍습이 있다. 한 발 정도로 같은 크기의 술독이 신사 뜰 선반에 가

근처에서 맴돌았던 것이다. 포장마차 같은 지하철 술집에서 오뎅(おでん)과 맥주 한잔씩 즐긴 선남선녀가 한 10명쯤 됐었나? 일본방문의 첫날, 일본 뒷골목의 풍류를 맛보았던 것이다. 日本의 慶州이자 千年古都, 교토에는 1,650여개의 古刹과 400여개의 神社가 남아있고, 옛 궁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본전역이 속대밭으로 되어 갈 때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격대상에서 교토가 제외되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세기 말, 일본근대화의 초석이 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교토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도쿄에 넘겨주었다. 처음 간 곳이 기요미즈데라(清水寺)였다. 이 절의 자랑은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이었는데, 좋은 단풍을 보기에 아직 시절이 너무 일렀나 보다. 밝은 주홍색으로 채색된 입구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밝게 보인다. 절벽 위에 바로 세워져 아찔한 本堂이며, 높이 솟은 scaffold 위에 설치된 난간이 위험해 보인다. 10m가 넘는 낙폭으로 떨어지는 두 줄기의 藥水を 마시려고 선 줄이 꽤 길게 늘어져있다. 내려오는 길 양쪽으로는 먹거리와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하고, 그 중에서도, 모찌(もち)집과 부채집에 눈길이 갔다. 다음으로 들린 곳이 교토의 귀무덤(耳塚 이총)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흔적이다. 일본침략군은 戰果를 보고하기 위하여 朝鮮人의 목을 베어 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목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내야 할 짐도 점차 많아지고, 일이 번거로워지자, 아예 귀와 코만 잘라서, 소금에 절여 보냈다. 한 땀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다. 이러한 우리 역사의 恥部(치부)를 보았을 때, 분통이 치밀었다. 침략자인 왜놈들도 밟지만, 이조 500년 역사를 통해 가장 무능했던 宣祖와 당쟁으로 국방에 소홀했던 벼슬아치들에게 향한 울분의 咆哮(포효)를 삭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한국 현 정권과 붉은 색깔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알아들음지, 심란하구나. 養兵 10만을 주창한 이율곡 선생, 有備無患의 이순신 장군이 돌보인다. 교토에서 또 하나 좋은 구경을 하였는데, 기모노쇼였다. 기모노(きもの 着物)는 일본 전통여성복으로, 한국여성이 한복 입는 것보다 일본여성이 기모노를 더 즐겨 입는 것 같다. 옷맵시도 예술적이고,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Panty는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한다고. 7명의 팔등신 모델들이 아주 예쁘다. 긴가꾸지(金閣寺)는 건물 전체에 금박을 입힌 3층 누각으로, 장군의 개인 정원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사찰로 바뀌었다. 그래서 절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공원 같은 느낌을 주며, 연못에 비친 황금누각은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한다. 나라(奈良)로 가는 길에 교통이 막혔다. 자세히 보니, 긴행렬이 있고, 상여같은 것을 어깨 위에 메고 가는 한 무리가 지나간 다음에야 길이 뚫렸다. 마쯔리(まつり)의 행렬이었다. 나라는 일본의 옛 수도로서, 한반도의 三國, 특히 백제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도다이지(東大寺)의 정문인 난다이몬(南大門) 쪽으로 걷다 보면, 수십 마리의 사슴들이 모여든다. 팔들은 전부 잘렸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센베이(せんべい)를 좋아한다고? 센베이 자판기가 바로 옆에 있었다. 東大寺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라는 다이부쯔덴(大佛殿)과 세계 최대의 다이부쯔(大佛)로 유명하다. 청동불은 초대형 불상으로, 손바닥에만 사람 16명이 설 수 (다음면에 계속)

## 졸업 40주년 기념여행

鄭良秀(66, NC)



와 퇴계 선생의 四端七情論(孟자의 四端과 禮記의 七情)에 대하여 잠깐 얘기를 나눴던 인연으로 하여, 가이드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방에 앉아서 문지방에 팔을 얹고 論語를 암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다른 데도 아니고, 大儒學者 퇴계 선생의 교실에서... 도산서원을 나오다가 보면, 물 한가운데 試士壇이란 조그만 섬이 하나 보이는데, 원래는 섬이 아니었다. 正祖가 퇴계 선생의 遺德을 추모하여, 이곳 松林에서 御題로 과거를 보였는데(陶山別試), 응시자가 7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안동 댐 수몰로 송림은 없어지고, 10m 축대를 쌓아 비각과 비를 그 위로 옮겼다. 韓貨 1천원 권을 보면, 앞면에는 퇴계 선생의 초상화, 뒷면에는 도산서원의 전경이 그려져 있다.

다음날(10월 14일), 5박6일 일본여행의 장도에 올랐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수천 년 역사의 동반자이며, 愛와 憎이 교차하는 나라, 일본. 현대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고,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인 일본. 우리는 이런 일본을 돌아보고 또 배우러 간다. 통계를 보면 불교가 70%, 神道가 81%, 기독교가 1% 정도라고 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을 통해 전래된 불교는 일본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神道라는 토속종교와 혼합되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다. 神道の 사찰인 神社는 대도시 한복판에서부터 깊은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특성이 깃든 건축물이다. 각 신사는 각종 토착신앙과 관련된 신을 모시는데, 전국에서 모시는 신의 종류는 2천이 넘고,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곳도 많다. 모시는 신에 따라 그 신이 전문적(?)으로 들어주는 소원에도 차이가 나는데, 주된 관심사항은 역시 연애, 사업, 시험 등 현세적인 문제들이다. 특히 입시철이면 학문의 신을 모시는 덴만구(天滿宮)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신사에서 소원을 빌고 점을 칠 때는 (에마 繪馬 えま)나 오미꾸지(おみくじ)를 이용한다. 에마는 집 모양의 나무판으로, 여기에 소원을 적어서 신사에 걸어두면,

지런히 나열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사마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입구에 '天'자처럼 생긴 문이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일본인은 새를 신의 사신이라고 믿어왔고, 사람의 뜻을 신에게 전달해줄 매개체인 새가 쉬어갈 장소를 신사 앞마당에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리이(鳥居)인 것이다. 마쯔리(祭り まつり)란 축제라는 뜻의 일본어다. 본래 마쯔리는 신사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치르던 행사의 일부였다. 그러다가 근대화와 더불어 종교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일종의 祝祭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일본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무라이(さむらい)문화를 보자면 닛뽀도(日本刀)나 일본城을 들 수 있겠다. 15세기를 전후해서 지어진 일본의 성은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돌레에 해자를 파고, 석벽을 겹겹으로 둘러싼 중심부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덴슈가꾸(天守閣)라는 높은 누각을 세운 구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역할이 바뀐 오늘날, 덴슈가꾸 꼭대기에는 반드시 전망대가 자리한다. 국내가 통일된 뒤에는 교통의 요지에 성이 세워지면서, 성 둘레는 죠카마찌(城下町)라고 하여 주요 변화가를 이루게 되었다. 좋은 예가 오사까성 주변과 나고야성 주변, 그리고 도쿄의 긴자부근이다. 韓, 中, 日의 옛 건축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처마의 線으로 금방 구분이 된다. 일본의 옛 건물도 線이 아름답다. 正午쯤 간사이(關西)공항에 우리 일행 52명이 착륙하였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히데요시(豊信秀吉)가 세운 오사까성 덴슈가꾸(天守閣)였다. 히데요시의 초상화가 있기에 자세히 보았는데, 생긴 게 좀 특이하긴 했지만 원숭이 같지는 않았다. 오사까성 전장도 영화로 볼 수 있고, 전시품도 흥미로웠다. 오사까 全日空 Hotel의 構内食堂에서 저녁으로 먹은 일식 뷔페가 아주 좋았다. 탐험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시내구경 간다고들 나섰다. 걸어서 나왔는데,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들 우메다(梅田) 지하철 驛

紙上法醫

자 수

노 용 면(55, 대뉴욕)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뉴욕주 동북쪽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사건이다. 신년축하를 하기 위해 재향군인들이 행진(New Year's Day Parade)을 하고 있었다. 이 행진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도 여럿 끼어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행진의 지휘자를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사건 현장이 하두 혼란해서 경찰은 행진이 해산될 때 까지 범인 찾기를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경찰이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누가 말하기를 피상하게 생긴 젊은이 하나가 행진 지휘자의 곁에서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살해 범인 같다고 했다. 곧 경찰이 그 젊은이를 잡아냈다. 두 형사가 그를 경찰 고문실에 데리고 가서 질문을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행진 지휘자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그를 칼로 찔러 죽인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경찰이 그가 범 죄를 범한 사실을 목격했는지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설득하니, 그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그를 환각속에 빠지게 한 듯 했다. 그의 이름은 와니(Warney)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4세였고, 일정한 직업없이 여기저기에서 허드레 일들을 하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고 그의 IQ는 68이었다.

한편 경찰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묻은 휴지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 혈액을 검사하니, 그것은 피해자의 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와니의 혈액과도 일치 않았다.

와니는 경제적으로 빈약했기에, 법정에서 임명한 변호사가 그를 변호하기로 했다. 그 변호사가 나의 도움을 청해 왔기에, 나는 경찰이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잘 검토하고 그 휴지에 묻은 혈액의 원천을 밝히도록 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피묻은 휴지의 검사결과를 와니를 변호하는 증거물로 내놓겠다고 하니, 검사가 주장하기를 그 피묻은 휴지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판사도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했길래, 이것은 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법정에는 재향군인들과 신문기자들이 꼭 차 있었다. 간단한 재판 끝에 와니는 종신징역을 언도받았다. 판사가 징역을 언도하기 전에, 가해자가 유가족에게 사과의 표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마디 했다. 재판이 끝나니 경찰과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쉽게 잘 처리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형무소 죄수들은 남들이 저지른 범죄에 관심이 많다. 그 중 하나인 피터가 특히 그랬는데, 그가 와니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자주 물었다. 와니는 자기가 사건 현장에서 행진 지휘자를 따라간 것은 사실이고, 그를 죽인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칼로 누구를 찔러 기억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용기는 없다고 중얼거렸다. 피터가 "그런데 왜 범행을 자백했지?"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가 자백을 안했더라면 사형을 언도받고 오늘 이 자리에 없을런지도 몰라."라고 덧붙였다.

그런 후 최근에 수감된 죄수 한 사람이 피터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수많은 범죄를 범했는데 한번도 안 잡혔고 이번에 드디어 걸려들었다고 하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재향군인 살해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랑삼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때 잘못하여 자기 손가락도 잘랐다면 그 상처의 허물을 보여주었다.

피터가 와니를 데리고 형무소 간수 책임자를 만났다. 그 간수가 처음에는

10년 전에 생긴 일이라면서 협조를 안했지만, 피터가 하두 조르기에 자기가 사실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간수가 형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변호사가 열심히 조사하니, 그 최근에 수감된 죄수의 혈액형이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된 휴지에 묻은 혈액의 형과 같음을 알아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혈액의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려면 처음부터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경찰이 너무 서두르던 것 같다.

와니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가 형무소 문밖으로 나오니, 80세의 그의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God is good."라고 했다.

내가 뉴욕주 라크랜드 카운티 법의 책임자로 있을 때 있던 사건이다. 새로 생긴 쇼핑센터에서 얼마 멀지 않은 숲속에서 젊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 주변에 차가 많이 다니는 까닭에 시체가 일찍 발견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아직 보존되어 있었다.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상처(blunt force injury)가 여럿 있었는데, 흉기는 돌처럼 무거운 물체로 추정되었다. 그녀의 두 눈은 잘 접은 머리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 머리수건이 그녀의 것임이 곧 알려졌다. 다른 상처는 없었고, 심복맥의 증거도 없었다. 보도진들이 았다투어 이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생긴지 몇 주가 되어 그 사고 현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범죄수 하나가 교도소 소장을 찾아가, 자기가 그

려가 금각사를 방화하는 이야기를 지어 노벨상 후보작까지 올랐다. 나는 금각사를 보면서 미시마의 기술한 허구의 장면이 실제 일어났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아니,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아름다운 절에 불을 지르는 작품의 주인공과 행동을 같이 하는 관찰자로 일체화되었다.

우리는 방화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우선 금각 북쪽 관자 문에 박힌 못 두 개를 빼어 둔다. 우리는 금각 북쪽에 눈을 두어 조심스럽게 살폈다. 어둠이 깔려오며 따라 어둠 속에서 금각의 모습이 제 모습을 들이며 차차 나타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금각사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러면서 한편 자꾸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가슴은 자꾸 고동치고 작은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성냥을 켜다. 갑자기 그 순간 우리도 그 불길에 싸여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층은 무도관 이어서 불길과 함께 다다미가 타서 연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숨이 막혀 중국식으로 된 3층 누각으로 올라갔다. 잠엄하게 금각의 불길 속에서 생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삼 층 문은 밖으로 자물쇠에 의해 견고하게 잠겨있었다. 나는 그 불길이 치솟는 현장 속에서 젊은 승려와 함께 3층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숨막히는 연기로 인해 건물에서 도피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금각사 바로 뒤를 두른 숲

금각사 (金閣寺)

정 유 석(64, 캘리포니아)



[금각사]만은 생전에 언젠가 한 번은 보아야겠다는 소원은 필자가 오랫동안 지내온 집념들 중의 하나였다. 자기가 조직한 사조직 군대를 이끌고 천황제 부활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를 구상했다가 할복 자살을 하고 만 시대착오적 군국주의자였지만 그래도 작가 미시마 유끼오(1925-1970)가 작품화시킨 건축물이었다. 젊은 날 그 화려한 문체와 빈틈없는 구성으로 인해 그에게 한없이 빨려들었던 필자에게 [금각사]는 가끔씩 나타나는 한 개의 환영과 비슷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금각사를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대학 동창들이 이번에는 8박이나 되는 일정을 잡아 일본 여행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뺄 수 없는 곳은 교토(京都)였다. 금각사는 물론 거기에 있었다.

금각사의 원래 이름은 로꾸온지(鹿苑寺)다. 이 절에는 큰 정원이 있어 유명하고 정원 한 가운데에는 아름답고 비교적 큰 연못이 있다. 금각은 못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정원과 건축물들은 아름다

움의 극치인이라 극락정토를 표현했다고 전한다. 우리 일행은 때를 지어 남쪽 방향을 돌아 북 쪽을 바라보던 순간 연못을 마주 건너 정좌한 금각이 홀연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 금각사! 정말 삼층 건물이었구나. 온 건물이 금으로 싸여 찬란한 신비를 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내 눈에 비친 금각사는 모두 두개였다. 물위에 떠 있는 금각사와 함께 마침 서쪽으로 저무는 강한 태양 빛을 받아 똑같은 모습과 색깔로 대칭이 되어 수면에 떠오른 또 하나의 금각사의 모습이었다. 두 개의 금각이 뿜어내는 강렬한 황금색은 절 뒤를 둘러싼 수풀이나 눈앞의 호수를 압도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감을 느끼게 했다. 이 전각은 원래 너무 아름다워 어떤 사람이 자기만 홀로 그 모습을 지니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55년에 다시 재건되었으며 1988년에 온 건물을 다시 금박으로 씌웠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황홀한 금색을 사방으로 뿜으며 빛나고 있었다. 작가 유끼오 미시마는 이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 승

여자를 죽였다고 자수하였다. 그가 금요일 오후에 교도소 근처에 있는 정신과 병원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 갔다 오던 도중에 쇼핑센터에서 그 여자를 만났고, 그녀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눕혔다고 했다. 때린 장소, 피해자의 생김새, 상처의 부위, 그리고 피해자의 옷차림 따위가 아주 정확했다. 오직 다른 것은 그가 범 죄를 저질렀다는 날짜뿐이었다. 시체가 발견된 날은 목요일이었는데 그가 교도소 밖으로 나간 날은 금요일이었다. 그가 목요일에 교도소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다.

그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반항하면서 자기 얼굴을 활취려고 하였으며, 땅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려고 하였는지를 몸짓을 하면서 세세히 진술했다. 진술을 마칠 즈음에는 그가 깊은 회한에 빠져 있었다. 이때 경찰이 그의 진술의 또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찾아냈다. 피해자의 눈을 가진 머리수건에 마름모꼴(diamond shape)무늬가 있었다는 것은 맞아도 그 색깔이 틀렸다. 그가 머리수건의 색깔이 파랗다고 했는데, 그것은 빨간 수건이었다. 나중에 조사하니, 신문기자들중의 누구도 그 수건의 색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죄수들은 범죄에 관련된 신문 기사 또는 테레비존 방송들에 흥미진진하다. 아주 열심히 읽고 듣고 하면서 사건을 상상한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가진 죄수들중에는 사건을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일을 저질렀다고 망상하기 시작한다.

검찰이 그의 진술을 열심히 분석한 후, 결국 그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진범은 잡히지 않았으나 검찰이 올바른 처사를 했었다.

Reference:  
Yong-Myun Rho: Murder or Suicide,  
Carlton Press Corp. 1996

연민

노 승 국(70, 텍사스)

가슴을 때도는  
노을 닮아 진한 고운 그 빛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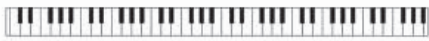
잊고져 눈감아 하염없이  
고이 젖어 물든 달빛 그림자.

이제, 잃은 그세월 돌이킬수 없어  
아, 지금은 마음답아 떠나야할 때

속을 통해 산 정상까지 정신 없이 올라 도망했다. 힘에 겨워서 벌렁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니 무수한 새들이 울부짖으며 소나무 위를 지나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무수한 불 가루가 날아가 금각의 하늘을 금 사래기로 뿌린 것 같이 보였다. 혼자 정신 없이 이런 장면을 상상하고 있을 때 한 동창부부가 내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의 모습을 가능한 한 모두 사진에 담기 위해 사진기를 세워둔 다음 그들에게 짐짓 어느 정도 사이를 떼어 보라고 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자리잡은 금각사와 함께 때마침 서쪽에서 내 뿜는 광선으로 인해 화려하고 찬란한 황금색으로 치장되어 눈부신 자태를 보이는 그림자까지 모두 순간적 장면이지만 배경으로 기록해 남기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비록 내 사진기는 아니어도,





# 개근상

정 정 수(62, 후로리다)

우리 서울의대 동문중에 국민학교 다닐때 개근상 우등상 한번 안받은 사람 없을줄 나는 확신한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 내가 말하는 개근상은 좀 특별한 것이라서 이제 나이도 70이 되고 죽을 날 몇 날 안남았으니 공자도 "70 나이때는 나 하고 싶은대로 해도 별 실수 없다"고 한것을 보면 옆에 예쁜 여자가 있어도 별로 자신있게 해줄수 없을테니 큰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고 내 자랑 좀 했다고 별로 흥분 것 없을 것이고 설사 흥을 본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서울의대 16회, 62년 졸업 동기생들 반 이상이 미국오는 주류파가 되어 건너와서 처음 15주년까지는 좁은 아파트에서 애들하고 시달려, 당직, 서투른 영어 미국문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던중 우리 동기의 귀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졸업 40주년 재상봉 날짜가 드디어 다가왔다. 준비위원들이 얼마나 바쁘셨을지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작은 규모의 병원일을 마무리 짓고 미리 일 처리 끝내느라고 남편도 나도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다.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은 산과 환자도 여행만 가려고 하면 왜 그리 걸리는 환자가 많은지 남편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유도 분만하느라 바쁘고 난 미리 미리 수표를 써서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숨가쁘게 간신히 마무리 짓고 비행장엘 도착해서 남편은 톱툰 파킹장에 차를 세우러 가고 내가 가방들을 부치려고 여권과 티켓을 내놓으니 상냥한 직원이 오늘은 비행기를 못타워 주겠다. 놀래는 나에게 내일로 예약이 돼 있단다. 07 Oct. 06로 돼 있는데 Oct 06로 내 마음대로 읽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놓았나 보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돌이 한바탕 웃고 또 웃다가 골프나 칩시다. 하루를 벌어서 할 수 있는것도 전화회복이 된 것 같다며 골프를 쳤다.

서울의대 병원 강당입구에서 방명록에 이름들을 쓰고 코싸지를 가슴에 달고 남편들이 공부하던 계단 교실 강당으로 모였다. 반가워서 감화가 깊어서 별로 변하지 않은 옛 교실에서 완연히 영감으로 변한 친구들과 악수들을 재상봉이 시작됐다. 같이 공부하고 졸업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때마다 묵념하는 가슴들이 아팠으리라. 같이 재상봉하고 여행하자며 기다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세 분이나 돌아가셔서 너무나 애석했다.

대학의 옛날과 현재를, 변해온 세월들을 사진으로, 도표로 실감했다. 서울의대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한국에 계신 이종호 신부님과 미국의 김용재 동문이 표창을 받으셨다. 인류를 위해 동문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두 분이시다. 함춘회관도 둘러보고 시계탑을 배경으로 단체사진도 찍었다. 너무나 변한 서울거리들, 병원 새건물들 속에 시계탑이 그대로 있어 줘서 큰 위안이었다. 점심식사후 지금은 조용해진 창경원도 내려다 보고, 김충규 노영자 커플은 우리가 만나던 그 능행나무가 어디로 갔느냐고 두리번 거리셨다.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찬이 열렸고 조의열 동문의 사진전시회는 매진이

였듯이, 팔방재주꾼 강성근 동문이 그 바쁜 중에도 열심히 사방에 수소문 노력끝에 아름다운 미시간 호수근처 Saw Mill Creek Resort Hotel에서 재미 62년 동기 15주년 졸업기념잔치는 정말 재미있게 보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윤재균 군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동기사진 찍는데 귀염을 떠는 모습이 환하고 또 고인이 된 김홍섭군의 그당시 4만불짜리 yacht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싣고 미시간 호수를 시원히 달러주었으니 간사하기 짝이 없는 어린 동심들은 돈의 위력에 놀려 닥터 김, 닥터 김하면서 김홍섭군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환하다. 그 다음해에는 내가 동기회장을 맡아 펜실바니아 포코노 마운틴 Lake Maomi에서 개인 산장들을 여러개 각각 빌려 필라델피아에서 김치 등 한국음식을 수송배급하면서 재미있게 일주일 보냈다. 또 한번은 강광원이가 회장일때 Hershey Resort에서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집으로 마지막 날 와서 강광원이가 그 맛있는 메릴랜드 블루 크랩을 몇 bussel을 우리 뒷마당에 풀어놓고 정말 그 비싼 블루 크랩을 실컷 먹은 기억도 새롭다. 우리 동기회의 특징은 해마다 돌아

와서 전액이 동창기금으로 기부되었다. 우리 학년의 자랑인 노규상 부부와 윤낙승 부부의 화려한 볼룸댄스에 사회를 맡은 연예인이 놀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신것도 놀라운데 춤도 이리 잘추시니 아름다우십니다 했다.

다음날 한국, 미국동문 29커플이 국내여행을 2박3일간 다녀왔다. 옛골 토



김혜자(Mrs. 황철 66, 뉴욕)

성이라는 갈비집에서 길이 막혔다며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국내여행팀과 내일 일본여행을 할 미국서 온 팀이 합류를 해서 거나하게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돌리며 즐겁고 애뜻하고 또 언제 볼건가 건강하거라 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배스가 설때마다 내리는 친구들 아쉬워서 이종현 씨는 카작스탄 말로 "다 스러트러"가 I love you라며 우릴 향해 "다 스러트러"하고 내리시고 추광철씨는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굳이 하며 --"를 끝까지 다 부르시고 그만 내리시라는 친구들의 재촉에도 자꾸만 자꾸만 손을 흔드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짧은 만남이었어서 우리도 서운했다.

일본여행은 미국서 간 22커플과 한국서 박인현, 이경희, 이상준씨 커플이 손님안내를 맡아 애를 쓰셨다. 우리는 어려서 부터 일제의 탄압과 3.1운동 등등 일본에 대한 인식이 뇌리에 새겨져 있어서 일본은 여지껏 가보지 않은 나라였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일본을 좀더 알게됐고 규칙을 잘지키고 깨끗하고 길도 자동차도 모두 반쪽 반쪽할 정도로 깔끔한 국민들이었다.

바다를 매워 만들었다는 오사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비하면 아주 구식이었다. 한국은 옛것을 다 없애버리고 초 현대식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아서 내가 살던 조국이 아니고 외

가며 한번도 수고 안한 동기를 뽑아 회장을 맡게해서 다음해를 준비하게 하는데 2006년에는 남성희 회장 특히 미세스 남이 너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캘리포니아 Tamacule Resort에서 2월달 1주일을 재미있게 지냈다.

2007년 2월은 우리 62년 동문 졸업 45주년 기념이 되는 큰 해인데(사실 의과대학 50주년 기념에 참석하는 기회는 하늘이 덩으로 주는 특별한 은혜로 생각함) 이상원 회장이 하와이 - 뉴질랜드 - 오스트랄리아 (2/3/07 ~ 2/22) Tour를 열심히 준비하고 미세스리가 특히 한국으로 미국으로 정말 정성없이 전화하며 수고하고 있다.

나는 특이하고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이 62년 동기회에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개근상을 타게 된 것을 내 스스로 자축하고 있다. Runner up으로 한번 결석한 김호균군이 있다. 사실 인생살이 하는데 한인회, 교회, 종친회, 동창회 등 여러 친목회가 있지만 나는 동기동창회만큼 제일 재미있고 의미있는 친목회는 없다고 본다.

같은 나이 또래가 같은 시기에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고동락 재시험까지 쳐가면서 같은 인술을 평생 펼치고 있고 언제 만나도 아무리 오래 있

국에 온듯 낯설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공항에서 오사카 도시로 들어가며 보던 주변 풍경은 옛도시와 닮은막한 동네도 보이고 아파트엔 빨래와 이불도 널어놓은게 예전의 낯익은 한국에 온듯한 풍경이었다. 처음 본 곳은 오사카성 천수각이었다. 풍신수길의 천하통일을 하고 지었다는 난공불락의 거성이라는데 여러가지 전리

건났다. 아시 호수는 후지산이 80년 주기로 계속 폭발하면서 강이던 것이 호수로 변했다고 한다. 수심은 낮아도 온천물이라 겨울에도 얼지 않는단다. 활화산이어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유히계곡에서 껌질이 새까만 삶은 계란을 사먹고 7년을 더 명이 길어졌다고 좋아들 하며 산을 내려왔다. 일본은 면적의 80%가 산이라는데 나무들이 차있고 자연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보관해서 생태계가 깨지지 않게 하려 한다고 옛날식 개천 방죽이 그대로 있어서 반가웠고, 내가 어려서 살던 집 같은 단층 혹은 이층집 일본식 집들에 빨간 감들이 열려있어 정겨웠다.

동경에서는 자유시간을 주어서 말로만 듣던 미끼모토 진주집도 구경하고 미스꼬시 백화점도 들어가 보고 지하의 수퍼마켓에서 이명희씨네랑 아이스크림, 소다와 빵도 사 먹었다. 캔탈롬이 50불이라 해서 놀라웠는데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길래 팔겠지. 동경의 야경은 휘황찬란한데 자유의 여신상도 불을 밝히고 서 있고 동경탑은 에펠탑처럼 보였고 무지개 다리 등 화려했다.

닛코라는 곳으로 갔는데 꼬불꼬불한 산길에 맑은 계곡과 단풍들이 예뻐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일본에서 첫째가는 명당이란 곳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조공이 있었다. 크기도 위압적이고 화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었다. 너무 환벽하면 신이 노한다고 기동하나의 원숭이 얼굴상은 거꾸로 세워 놓았다. 석등들도 이끼가 끼인채로 멋있었고 바다에 깔은 자갈은 이끼가 안끼인다. 폭포도 구경하고 다다미 방인 반큐호텔에 투숙했는데 산속에 계곡이 있고 옥외 온천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에게 기모노도 입혀주었다. 왜 우리가 기모노를 입나 하다가 이 나라에 여행왔으니까 이곳 옷을 한번 입어 보는거다 하고 다시 마음 먹고 입은 옷은 너무나 예뻐다. 예쁘게 입고 모두 앉아 일본 정식을 요란하게 차려놓은걸 먹었다. 미세스 조규웅과 미세스 한일성은 일본 여자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찬사를 많이 들었다. 노재선씨는 끝내 안 입으셨다.

모두다 자랑스러운 우리 66년도 졸업생들, 가족들 건강하게 또 만나자며 호텔 종업원들의 배움을 받으며 돌아왔다.

다 만나도 서로 반갑게 허물없이 말 놓고, 마음열고 즐길 수 있는 친구가 동기들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지난 여름 서울의대하기학술대회를 아틀란틱 시티 타지마할 호화호텔에서 최준희 권정덕 64년 극성동문들이 마피아같은 조직으로 너무나 성대히 잔치를 치렀는데 너무 인상깊은 것은 이정필(64)동문 아드님의 명강의, Robotic Prostate Surgery 슬라이드 강의 끝에 64년 동기들의 해마다 동기모임때 어릴때의 자기 모습과 자제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감명스러웠다. 아버지보다 훨씬 미남인 김용재(66)동문 자제의 Heuro surgery 강의, 이정필 일가의 피아노 바이얼린 플룻 연주들 너무 즐겁고 자랑스러운 광경이었다.

서울의대 선배 후배 동문님들이여, 우리 62년 동기동창 동문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우리 70-80 사이에 두 부부가 함께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자만이라고 하니 이것 저것 바쁘다 미루지 말고 기회있을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 서로 우정도 나누고 늙어가는 인생정보도 나누어가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인생 대川을 건너갑시다.

“금강에 살어리랏다. 금강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금강에 살어리랏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음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드디어 내가 이북땅 금강산을 밟을 수 있게 되다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안고 금강산에 오르기 시작하다.

첫날 오전에 광화문 집합장소에서 '금강산 관광 1호'라고 유리창 앞에 쓴 현대 대형버스에 오를때 부터 기분이 이미 들떠 있었다. 복잡한 시가지를 뚫고 약 4시간여에 걸쳐 6.25 동안 때 간첩과 관련된 고장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간성을 거쳐 고성에 위치한 집합장소인 금강콘도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는 이미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와서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캠코더, 핸드폰, 망원경, 녹음기 등의 지참을 불허한다는 주의사항들을 들은후 손바닥 크기의 목거리 신분증을 배부 받으며 그 신분증을 분실시에는 10만원의 재발급 비용이 든다는 경고도 놓치지 않았다. 거기서 20여분 걸려서 남측출입사무소에 도착, 검색대를 통과후 간단히 출국(?)수속을 끝마쳤다. 그곳으로부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게 된다.

군사분계선 도로는 양쪽에 여유 있는 갓길(shoulder)도 없이 다듬어지지 않은 2차선의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길을 따라 눈에 띄우도록 남과 북이 각기 다른 네온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 철조망은 우리들을 약간 긴장시키게 했다.

산전초목들에게 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6.25 사변때 동족상쟁의 그 쓰라림과 대혼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때부터 버려진 황무지의 땅과 이름없이 제멋대로 자란 불품없는 잡목들이 과거 역사속에 지쳐있기에 우리들에게 아무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듯 했다.

산전초목들에게 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6.25 사변때 동족상쟁의 그 쓰라림과 대혼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때부터 버려진 황무지의 땅과 이름없이 제멋대로 자란 불품없는 잡목들이 과거 역사속에 지쳐있기에 우리들에게 아무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듯 했다.

그로부터 20여분후에 도착한 북측출입사무소에서도 입국(?)수속을 거친후 온정리로 가는 길가엔 약 100m 간격으로 길가를 따라 보초를 서있는 표정없는 초라한 북한 군인들을 차창을 통해 겹눈속에 넣을수 있었다. 왼손에는 모두 붉은 형경을 든... 하기가 사진도 찍지 말라, 손도 흔들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었기에 우리도 애써 아무 표정도 짓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30여분 후에 현대에서 마련해 놓은 온정리의 넓은 광장에 우리들을 쏟아놓으니 시계는 오후 5시 30분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곳이 금강군 온정리란다.

온정리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서 원산까지는 지척이라며 남편은 옛날 학생시절에 아버님께서 원산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셨을때 방학을 이용해 한여름 그곳에서 지냈던때를 상기하면서 그때 만났던 친구와 아름다운 명사십리의 추억속에 감회가 깊은듯 했다.

두어군데 지정된 식당에서 심볼의 식권을 구입하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은 남측 현대에서 경영한다고 들어서 였는지 서울서 보던 메뉴와 큰 차이는 없는듯 했다.

우리의 숙소는 해금강 호텔로 지정되어 셔틀버스로 10여분 가니 중형 크기의 크루즈 선박을 개조해서 만든 해금강 호텔이 부둣가에 정박해 있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안내원의 말이 1990년도에 고 정주영 사장이 금강산 개발을 위해 유럽에서 중고선박을 이곳으로 구입해 왔다고 한다.

말이 해금강의 일부이지 흔히 볼 수 있는 큰 호수거나 다름은 없었으며 우리는 6층 호텔방을 배정 받아

일정대로 북한 해금강변에서의 첫밤을 지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은 호텔식당에서 처음으로 북한 종업원들을 볼수 있었다. 아가씨들은 비교적 날씬한 몸매에 얼굴들이 희고 특히 불연지의 화장이 눈에 띄는 것이 인상적이다. 호텔식사는 buffet로써 기름기가 적은 담백한 음식과 각종 나물들이 우리들을 대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본고장에



왔으니 말 그대로 배를 든든히 채운후 보람있는 구경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대하던 구룡폭포를 관광하는날. 아침 날씨는 맑고 산들바람도 적당히 불어 등산하기에 알맞은 초봄의 날씨였고 우리 두사람의 마음도 어느정도 상기되어 있었다. 셔틀버스는 우리를 산밑 주차장까지 데려다 놓았다. 목련관 식당을 지나서 한참만에 자연의 물로된 금강문을 허리굽히듯 들어서자 그로부터 아름다운 장관의 경치가 펼쳐지면서 완만한 경사의 산행이 시작 되었다.

친정 아버지가 왜정시절에 금강산을 다녀오시면서 가지고 온 흑백의 금강산 화집을 어릴때부터 보고 또 보고 했기에 머릿속에는 금강산의 유명지가 환하게 기억되고 있는데 '흔들다리'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으나 실제로 흔들다리에 도착했을때는 단체로 수학여행은 현대고등학생들의 소란함과 작난끼 많은 점프로 감상보다는 뒤뚱거리며 다리를 건느느라 진땀 뻘 생각만이 기억에 남는다.

산을 올라가면서 명소를 지나는 길목마다 돌판위에 새긴 글들이 여러곳 있었는데 한사람의 인간을 이상화한 내용의 글들이 우리의 심정을 다소 역하게 만들었음은 솔직한 심정이다.

수정을 녹인물처럼 맑고 푸르다는 옥류담과 연주담을 거쳐 봉황새가 창공을 향해 나는 것 같다고하여 이름한 비봉폭포를 지나 드디어 2시간여에 걸쳐 외금강을 대표한다는 구룡폭포에 도착했다. 구룡폭포 그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어릴적부터 화첩에서 보아왔던 그 그림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 우리를 희열속으로 몰아 넣었다. 아홉마리 용이 소용돌이 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 폭포는 높이 74m에 너비가 4m로써 오랜세월 물이 패여서 13m의 절구통같은 둥근호를 이루게 되었다 한다. 금강산은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다만 외금강에 속한 구룡연과 상팔담 그리고 만물상만이 관광코스라 허용되어 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다고 했을때 이곳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나 서울 친구분들의 반응은 그리 탐탁치가 않았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관광비용으로나마 저들을 돕겠다는

생각은 물론 추후도 아니다. 고향을 북에 두고온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위로를 받듯이 고향냄새라도 가까이 맡고 싶은 심정이기에 이번 여행을 택한것이다.

서울에 고향을 둔 본인도 여러해 타향살이를 하면서 옛 고향을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그리움이 가득했던 과거도 있었다. 그

리고는 수년후 그리던 서울의 고향 옛집을 찾았을때는 그 모습은 간데없고 주위도 모두 변하여 오래동안 내가 그리워하던 그 고향이 아님을 느끼고 허망한 마음을 가진적이 있었다. 고향이란 '마음' 속에 있는것. 실제로 가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고향과 가족을 이북에 두고온 실향민들은 그들의 고향을 가볼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산수(參壽)를 바라보는 분들이지만 만남을 가질때 마다 늘 옛 고향의 이야기로 망향의 꽃을 피운다. 그럴때 마다 "이젠 마음놓고 그림던 고향엘 가 볼세." 그렇게 말할수 있을때가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날 오후엔 문화회관에서 열린 평양 모란봉 곡예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여러 가지의 곡예와 특수한 그들의 묘기는 그날 등산하느라 고된 육체적 피로를 풀기에 충분했다. 사회를 맡은 북한 아가씨의 요란한 한복과 특유의 역할을 담고 있는 코맹목소리는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런대로 애교로 봐줄수 있었다.

온정리 광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올라와 무심히 창을 통해 어두워진 길 건너를 내려다보니 인기척 하나없이 폐가로 보였던 허름한 관사들이 즐비하게 담 넘어로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집안으로부터 희미한 불빛이 여기 저기서 새어나오고 있지않는가.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들이 움직이며 왕래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 왔다. 도대체 무슨일들을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증이 일어났지만 더 이상의 의문과 생각은 달아 버리기로 했다. 이방지대란 느낌이다.

조석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에서 집합광장으로 오가는 동안 두어군데 건물목에서 우리의 버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곳 주민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등교길인 듯한 사내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뺏뺏 꾸았으며 여자들은 짧은 단발머리로 옛날 시골에서 보았던 '개나리 붓집'을 어깨로부터 아래로 비스듬히 메고들 있었고 다른 몇 명의 여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모두 우중충한 작업복 차림에 그들 역시 빨간 불연지 화장

을 한 모습이 눈에 띄는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런 화장법이 한창 유행인듯 싶었다. 궁금한것은 그 주위에는 공장도, 학교도, 집들도 아무 건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버려진 돌판뿐인데 저들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서 일터로 학교로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희망과 생동감을 전혀 볼 수 없는 어두운 표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잠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삼일째인 마지막날. 오전에는 기대했던 만물상을 오르는 날이다. 전날의 피로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마음을 크게먹고 등산길에 올랐다. 길이는 구룡연 코스보다는 짧지만 몸씨 가파른 산행이라며 안내원은 특별히 나이든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해주었지만 난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받아 흘려버렸다.

숲이 우거진 산길을 얼마동안을 올라가니 사진첩에서 보았던 귀면암이 멀리 시야로 들어 온다. 반갑고 낮익은 형상이다. 각가지의 잡목으로 옷입은 몸통바위 위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귀면암. 추하고 무서운 얼굴로 널리 알려져있으니 그나름 대로의 축복이 아닐수 없다. 만물상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가파른 돌계단을 얼마를 올라가서는 험한 돌산을 기여올라간 후에야 겨우 귀면암과 가까이 친구해서 우리들을 사진기 속에 함께 담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 직접 볼 수 있었음을 감격하며 다시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난간에 의지하여 거의 다 내려왔는데 남편은 뜻밖에 가슴에 부담이 오는 것 같으며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만물상 등정을 포기할 뜻을 비친다. 귀한 기회를 놓친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무리는 할 수가 없는것, 그 아래 적은 험터에 있는 노점에서 인삼차나 들며 쉬시라고 한뒤 여러 관광객들 틈에 끼어 혼자 만물상코스를 오르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한 3, 4명의 관광객들 틈에 끼어 나도 돌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산을 타는데 선수들인 듯 등산복장으로 철저히 무장들을 했으니 가벼운 운동화에 트레이닝 복장을 한 내뽕은 어디를보나 빈약하고 허술하기 그지 없었다. 올라가는길은 한쪽으로는 깊은 낭떠러지 계곡이며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은 여름을 서두르는 듯 새싹들의 푸른잎으로 싱그럽게 온산을 뒤덮고 있었다. 멀리로는 나무들 사이로 운치있는 돌산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을 보면 그 높은 산 넘어엔 바로 만물상을 볼 수 있는 곳인가 보다. 남측 집결지에서 구입한 지팡이와 또 한쪽은 쇠난간에 의지하여 가파른 돌 계단을 이리 저리 돌아 올라가며 쉬며, 또 오르며 쉬며 하다보니 어느새인지 앞으로나 뒤로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홀로의 신세가 되어 버렸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한데 변덕스러운 산위의 기후 때문인지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여 들기 시작하더니 곧 빗방울까지 조금씩 산속에 뿌리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에 인기척이 나기에 뒤를 내려다보니 웬 청년 한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반갑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한 순간에 그는 어느듯 내옆에까지 올라와 걸음을 멈추고 서있다. 뺨지를 단 제복의 청년이다. "산이 꽤 가파릅네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지요?" 내가 먼저 수작을 건말이다. 그 청년은 나를 힐끔 한번 쳐다보고는 내 지팡이에 달랑거리고 있는 별것아닌 작은 나침반을 유심히 조사해 본뒤 차분한 목소리로 삼분의 일은 더 올라가야 <다음면에 계속>

아침나절에 번잡한 출근시간을 피하여 용인 수지마을을 떠났다. 서울번두리를 돌아서 강동구 천호동에서 한 사람 더 합하여 두 패로 나뉘었다. 우린 동북쪽 방향으로 번잡한 서울을 떠나 팔당호를 오른쪽으로 끼고 44번 길로 들어섰다.

길눈은 서투르지만 국제운전면허를 여행사에서 떠나기 전에 준비했고 한 국내 보험회사에 3불(3,000원)에 추가운전자를 등록하고 3일간 줄곧 내가차를 몰았다. 모두들 연장자들이고 우리 부부가 제일 어린 셈이니 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 서울은 점점 날씨가 덥다. 10월 중순인데 윤달이 끼어서 그런지 지구의 그로브워밍때문인지 가지고간 대부분의 가을 옷들은 하나도 못입고 지냈으나 이제 산중으로 떠나니 잠버와 쉬에타를 입을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했다.

많은 국토가 댐으로 강을 막아서 잘 정리되어 있었고 경치도 달라지고 산에는 많은 나무로 뒤덮여 있어서 보기가 좋다. 해방직후 빨가벗었던 민둥산은 이젠 없다.

양평을 지나 강원도 홍천평에 들어서니 산세가 높아지고 공기가 맑다. 인제가 되기전 길가 휴계마을에 잠시 들르니 간단한 우동 한그릇이 구미를 돋운다. 마시는 물이라던지 수저 그릇을 깨끗이 하는 지 언제나 열려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젠 많이 좋아져서 안심하고 다닐수 있었다.

식당주위에는 이상한 야화를 나무로 조각한 물건들이 눈에 띄고 식당옆 한구석에는 빠고 찢어진 근육통을 치료하는 한국식 야외클리닉이 눈길을 끌었다. 테이프를 부치기도 하고 맛사지를 받는 사람도 있다. 비싼 씨티나 엠알아이를 찍지도 않고 그냥 치료를 받는 셈이다. 한달간 쓸수있는 양이 10불이다. 눈여겨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골관절 인대 그에 연결된 신경통이 의외로 많음을 알았다. 60이 가까운 나이에들 흔한 질환이다. 척추인대석회화질병도 서양사람의 10배나 된다.

공중변소들도 이젠 모두 자동으로 잘되어 있고 손 말리는 기계도 현대식이다.

인제를 지나 덕산 원통을 지나니 46번가가 나오고 만해마을로 가는 조그마한 갈림길이 나온다. 계곡을 끼고 작은 상점을 도니 벌써 주택지로 분할된 공터에 코스모스가 만발하다.

# 백담사와 속초행



서 윤 석(68, 오하이오)

만해마을에 다달으니 스피카로 흘러나오는 저음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높다.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밤새도록 정답게 들리고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바쁘게 한다. 길가에 늘어져버린 즐비한 개구리들은 땅으로 삼묵하다 힘없이 가버린 작은 시체들이다. 만해마을은 백담사로가는 방문객들이 묵고 갈수있는 잘 마련된 숙박시설이다. 안내자들이 친절하고 깊이가 있다. 한용운 시인, 애국을 노래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해방되기 1년전에 작고한 33인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분위기는 품위가 있다.

내설악으로 떠나는 백담사를 찾아가는 방문객들의 휴계점이다. 뾰뾰한 나무로 산이 기름지게 덮혀있으나 여기도 역시 콘스락슨을 하는 불도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 사람당 왕복 6불씩내고 근처의 주차장에서 백담사로가는 배스에 올랐다. 좁은 비탈길을 작은 먼지를 내며 달릴때에는 구불구불 발아래 남떠러지가 오금을 저리게 한다. 차가 지나가면 도보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몸을 바윗벽에 붙이고 한구석에 비켜서야 한다. 아무래도 위험하다. 가고오는 두 대가 마주치면 한 대는 남떠러지 가까이 서서 기다리는데 한치의 여유도 없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단풍이 한창이고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등산계절이기 때문이다.

구비구비 물러온 백담사는 큰 계곡가에 이룬 수백년된 사찰이다. 산보다 계곡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때는

산의 절벽이 풍화작용으로 터가 마련되어 지어진 한용운 스님이 기거하던 곳. 만해 박물관에는 그의 필체, 그의 글들, 한시, 우리말시,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모두 진열되어 있다. 한국 사람으로 의지가 굳었던 사람이다. 인도의 간디같은 느낌을 준다.

별당 한구석에는 참회를 위해 은신하던 실권자가 묶였다던 초라한 방이 전시되어 있다.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발거름이 지나가고 간혹 그를 용서하지는 자비로운 사람도 오고 간다.

백담사에 온 사람들은 아직 산길로 올라 가는 등산객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처럼 배스를 타고 다시 마을로 내려온다. 우린 마을에서 황태로 마련된 식사를 하고 조용한 숙소로 되돌아왔다. 다음날 차를 몰고 미시령 터널을 빠져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은 시냇가의 산책을 즐겼다. 공해로 뒤덮힌 도시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산천을 거닐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다. 아침공기가 뽀뽀 스치고 한때의 학생들은 어디론가 모두 떠나가니 만해마을은 조용해졌다. 집을 트렁크에 싣고 산길을 잠시 도니 새로 개통한 미시령 터널이 되었다. 옛길은 너무도 위험한 데 이 터널은 긴 꿈은 하이웨이이다. 인도가 양옆으로 잘 있는 환기장치도 너무도 잘되어 있는 이 좋은 길에는 아직 차가 많지 않다. 개통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터널을 삼분쯤 달렸을가 우리는 툭 터이는 동해 바다를 볼수 있었다. 영산의 허리를 뚫고 난 이 터널을 나오니 오른쪽 소나무 숲속에 자리잡은 울산바위가 눈앞에 들어온다. 전설이 담긴 바위다. 따라온 이 길이 곧장 속초시내로 동쪽 끝에서 끝나고 잠시후 만난 오른쪽길로 돌아 복잡한 길을 10분쯤 달리면 왼쪽 바닷가에 수산시장이 나온다.

새벽에 열린 어시장에는 가재미, 오징어, 도루묵, 명태, 대구, 겨울철 진눈개비에 말린 황태, 전복, 바닷연어 그리고 살아있는 시뻘건 커다란 낙지... 어시장에 마련된 간이식당에는 산 오징어가 새빨갳게 달아오른 뜨거운 적외에 오르고 살을 태우며 아픈 몸짓을 하며 죽어가고 있다. 나무관념보살...

생선회를 상위에 올려놓고 거친 바닷바람에 얼굴을 띄기우며 반세기넘어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함경도 아바이 아바이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북으로 북으로 동해바다를 따라 고향을 그리는데 그들의 한이 맺힌 기다림이 있다.

작은 반도의 나라, 백육십마일 허리가 잘리고 지금도 북쪽에는 굶주림과 핵무기의 허상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산다. 경제대국들로 성장하는 동부아시아에 세계평화만이 계속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하나가 아닌가, 땅도 하늘도 별도 모든 만물도 하나가 아닌가. 너도 나도 모두 우주의 신비속에선 모두들 생성되고 종식되는 빨려 들어가고 또 생겨나는 이 우주에서 잠시 살다가는 형제일뿐. 우리 모두 바닷가의 바윗틈에 매달린 과란 한구루의 해초처럼 한순간 사는 호모사피언스가 아닌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자.

결국 우리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만나질 걸려 구름위를 등등 떠서 바다를 넘어 밤과 낮을 뚫고서 아침이 되어 되돌아왔다. 수많은 별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얇은 타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 곡선이 멈추는 순간 문풍지를 요란히 흔드는 진동을 내면서 점보케리어는 결국 대륙에 육중한 바퀴를 대었다.

한순간에 지나간 인천, 수원, 용인, 여주, 홍천, 인제, 원통, 백담사, 속초.. 그 동해바다의 은은한 냄새가 아직도 내후각의 기억으로 새겨져 있고 새벽고기잡이 어부들의 뱃고동소리가 내 가슴속에 깊이 남아 물린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래요... 싱싱한 거래요... 이리와 보시래요... 세 마리에 만원이래요 명란젓이 방금 나온 것이라요...

참이슬에 처음처럼... 그녀가 먹다 뜯어준 황태찜 한조각에 고향의 정과 그 입맛이 촉촉히 젖은 내 혀속에 길이 남는다.

<전면에서 계속> 된다며 "산이 험하니 조심해서 올라가시라요..." 그 한마디의 말을 남겨 놓고는 그길로 다시 쓴 살갈이 내려가 버렸다.

"어휴우!" 적은 한숨을 토하면서 미심쩍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북한 안내원들의 그 철저한 감시의 훈련에 적잖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제 만물상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마음먹고는 정상으로의 산행을 단념하고 나니 뒤로 처지게 되는 인생의 맛도 감수하여야 했다. 말로만 고회가 아님을 체력으로 실감하면서. 산중의 산, 위로도 아래로도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빗방울도 건우어진 정막한 산을 이제 홀로 독차지하게 되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거기 돌계단위에 조용히 앉고는 내 마음을 비웠다.

"...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히 기도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계단을 내려 가는데 저 먼 발

치에서 남편이 서서히 이곳을 향해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내가 걱정이 되어서란다. 견우직녀의 만남도 아닌 건만 순간 반가움과 감사함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초입에는 그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육류관'이 우리를 대기하고 있었다. 금강산에 오면 꼭 한번 시식을 하겠다면 '평양냉면'을 큰 기대속에 주문했다. 그리고 남편은 예외없이 사리 하나를 더 주문했음은 물론이고, 내 속에 있는 생각 왓: 이름이 평양냉면일 따름이고 서울 오장동에 있는 '홍남면옥'을 따를수는 없다고.

2박 3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오후 4시경 온정리 광장을 떠나 남쪽으로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여행을 마칠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난생 처음으로 북한땅도 밟을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금강산이여, 북한 땅이여, 다시 찾아갈 그때까지 안녕을...!

##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내용:

-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영문으로 쓴 원고, (2) 종교적인 내용 (3)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 돼지에게서 오는 말

김 병 석(59, 시계탑 편집장)

며칠 전 주말 저녁식사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새해가 돼지띠라고들 했다. 돼지는 복띠라고들 했다. 돼지해에 태어나는 애들은 복을 안고 태어날거라고들 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도 보통 사람들에게 복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들 한다.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훌륭한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돼지를 보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잘자고 그저 마냥 만족한 듯하여 보인다. 스스로 만족하는 재주로 그리 편안해 보이는 것일까?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살 찌고 기름 흐르는 외모와 돈 많은 사람을 속없이 부러워하던 옛시절은 지난 것 같고, 제 몸에 살 이나 더 불이고 재물이나 늘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요즘은 멋지다고 말하기 힘들어졌다. 물질과 문명의 범람이 한창이나 마음과 정신으로 평안과 여유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멋을 추구하는 지성과 이성의 삶의 형태가 점점 많이 보인다.

그래, '돼지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모든 이에게 저절로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복된 일일까, 복, 복, 복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풍년되는 돼지해에 우리 시계탑을 위해서 나도 '돼지꿈' 하나를 축원할까 싶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그 복이 두배로 더 하는 것이라 하니 이야말로 이 꿈이 두배의 복으로 쏟아지지 않을까 하여서.

새해에도 우리 시계탑은 3개월마다 한 마리씩, 시계탑이 출생될 것이다. 늘 원고의 부족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통통한 돼지같이 많은 원고와 좋은 내용으로 살찐 시계탑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모든 동문이 싱글싱글

## 시계탑 편집위원 모임 초록

- 3개월에 한번씩 발간되는 시계탑 편집위원 모임날짜를 일정하게 정해서 계속하기로 했다. 시계탑이 출판되기 한달 전 세번째 수요일날로 정했다.
- 이번호에도 원고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졸업 몇주년 여행기가 몇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길이가 긴 경향이 있어서 이를 두번에 나누어 실을까 아니면 필자와 상의하여 줄여서 실을까 토의하다가 후자로 결정하였다.
- 임낙중 동문이 동창회에 대한 제언을 써서 보내왔는데 모두 실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호에는 1월 1일 날짜 맞추어 출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농담 골목

마누라가 쇠고기 덩어리를 끓일 때면, 꼭 그 양쪽 끝을 먼저 자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늘 그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장모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마누라의 외할머니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때는 솔이 너무 작아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면)

중년기 남자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방안에 여자들만 가득하고 남자는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더니, 늙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중년기 남자가 노인 남자를 보고 "어르신께서 나타나기 전에는 제가 이곳에서 펍 부자였습니다. 남자라곤 저 혼자였거든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 남자가 대답하기를 "나를 그 계산에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면)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 여자와 종교하곤 거리가 먼 남자가 앞 뒷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해가 떠도 비가 와도 만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구경해 온 남자가 하루는 과일 한 주머니를 사서 그녀의 문앞에 놓았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보더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뛰어 나와 "그 과일은 내가 갖다 놓은거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저 사람에게 과일을 갖다놓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면)

그렇만 하네요  
환자: 소변을 제대로 못봐 고통스럽습니다.  
의사: 나이가 몇 이세요  
환자: 아흔이요.  
의사: 그렇만 하네요, 그동안 많이 싸쳤잖아요. (이덕승)  
여의사  
A: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여의사가 진찰을 하잖겠어.  
B: 기분 찢어지게 좋았겠군.  
A: 옷을 벗으라고 하잖아.  
B: 그래서?  
A: 당신부터 벗으라고 했지. (이덕승)

후배가 적다고 염려하지 마시요, 늙지않고 오래오래 살면 왜 후배가 필요합니까. (하권익)

나는 아내에게 모든 현금을 맡겨두었는데, 마치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듯 합니다. (추재욱)

# 기차로 떠나는 콜로라도 여행

"Discover West America"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장엄한 산들과 험악한 절벽, 계곡을 따라 맑고 깨끗한 콜로라도 주를 기차를 타고, 가장 경치 좋은 국립공원으로 자연을 찾아가는 2007년도 여름 휴가를 동문들께 소개합니다. 작년 여름 61년도 졸업동기들의 reunion 프로그램으로서 50여명에게 크게 환영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에 사시는 김유홍(61)동문께서 assistant guide로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신청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주관 여행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ndi@centennialtravel.com)

**Date: June 16 ~ 24, 2007**  
**for 50 people only(first come, first serve)**  
**Reservation: Centennial Travelers**  
**Toll free phone: 800-223-0675 contact Sandi**  
**\$200 per person due at time of reservation**  
**Price: \$1,189 double occupancy (\$1,579, singl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